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李相協¹ · 金重漢¹ *

A Study 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by Yang Sangseon and his Medical Theory

Lee Sang-hyup¹ · Kim Joong-han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Yang Shangseon(楊上善)'s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was the first commentary book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its importance often mentioned in level with Wang Bing(王冰)'s 『Somun(素問)』 · 『Yeongchu(靈樞)』. The distinctive feature of Yang Sangseon(楊上善)'s commentary is that it is easy to comprehend in accordance with an organized classification, and that the explanations are simple and clear. Despite strict application of the Eumyang(陰陽, Yinyang) theory and Five phases[五行] theory throughout the text, should there be sentences which fall out of consistency with the basic theories, he added his own substantial commentary.

His medical theory gives attention to the Meridian system[經絡], lays emphasis on developing the soul[神], and has a unique opinion about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開闔樞] theory along with the Myeongmun(命門).

To explain the methods for preserving health[養生], he adopted the Nojang philosophy(老莊思想); to enrich the vitality he adopted the Buddhist philosophy(佛教思想); and to analyze physiologic and pathogenic factors, he adopted the Confucian philosophy(儒家思想).

Key Word :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Yang Sangseon(楊上善), Opening closing and pivot(開闔樞), Myeongmun(命門), health-preserving(養生)

I. 緒論

韓醫學에서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서적인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간칭함)은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으며, 戰國時代(B.C.475 ~ 221)에서부터 前漢·後漢時代(B.C.206 ~ A.D.220)의 著作까지 混入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著書이거나 한 시대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¹⁾ 따라서 本文

* 교신저자 : 金重漢.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kjhan24@hanmail.net Tel : 051)850-8638.
접수일(2009년 4월 3일), 수정일(2009년 5월 9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의 내용을 살펴보면 重複되거나 문장의 의미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심한 경우에는 前後가 서로 矛盾되는 내용이 존재하기도 하는데²⁾, 이러한 것들에 대한 校勘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校本으로 삼고 있는 王冰本 『素問』의 序文을 살펴보면 당시에 전해진 『內經』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王冰이 말하기를 脫簡되어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보충하였다거나, 篇目이 빠져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을 헤아려서 글자를 보태어 뜻을 분명히 하였다거나, 錯簡되고 破碎되거나 前後가 重疊된 부분은 그 번잡한 것을 제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대신 “첨가한 글자에 대해서는 모두 붉은 글씨로 그 문장을 써서 옛 것과 지금의 것을 반드시 구분하여 글자가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³⁾고 하였지만, 현재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글자를 볼 수 없으니 어느 것이 원래 있던 모습이고 어느 것이 고친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宋代에 校正醫書局에서 王冰本 『素問』을 교정하면서 만든 新校正本の 序文에서 말하기를 “誤謬를 바로 잡은 것이 6000餘字이고, 注의 뜻을 더한 것이 2000餘 條文이다.”⁴⁾고 하였으니 이미 오래전에 『內經』은 본래의 모습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太素』(이하 『太素』로 간칭함)는 唐·高宗 乾封 元年(666年)에서 弘道 元年(683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략 唐中期에 日本에 傳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中國에서는 宋나라가 杭州로 遷都한 후에 없어져서 研究되지 못하다가 1823年 日本의 仁和寺에서 『太素』의 古抄本이 발견된 이후에 中國과 日本에서는 이것에 대한 研究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⁵⁾ 따라서 日本 仁

和寺에서 발견된 『太素』는 『內經』과 관련된 책 중에서 原文이 최고 오래되었고, 宋代 校正醫書局的 校定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판본으로 楊上善이 注釋을 달았을 때 당시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太素』에 나오는 楊上善의 注釋을 살펴보면 楊上善은 經典에 나오는 글자 하나라도 함부로 고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注釋한 내용 중에는 王冰本 『內經』 이전에 전해져 왔던 『素問』이나 『九卷』⁶⁾과 그 외에 ‘有本’이니 ‘一本’이니 하는 내용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에 『內經』의 版本으로 전해진 서적이 최소한 2개 이상이었음을 反證하는 것이고, 楊上善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原文을 自意的으로 고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注釋을 하고 있음을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太素』에 대한 先行 研究를 살펴보면, 中國에서는 錢超塵⁷⁾이 ‘黃帝內經太素研究’를 통하여 『太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연구한 서적이 있으며, 그 외에 郭霽春⁸⁾, 李國淸⁹⁾, 胡天雄¹⁰⁾, 王洪圖¹¹⁾ 등이 『素問』과 『靈樞』를 校勘하면서 『太素』를 인용한 것이 있고, 日本에서는 丹波元簡과 丹波元堅¹²⁾ 父子가 校勘하면서 인용한 것이 있다. 그리고 國內에서 『太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李容範¹³⁾이 ‘楊上善의 三陰三

pp.1-8.

- 6) 後漢시대에 『靈樞』에는 독립적인 문헌명이 없었고 단지 『九卷』이라고만 칭해졌고, 西晉때는 『鍼經』으로도 또는 『九卷』으로도 불렸으며, 隋唐 이후에 『靈樞』라고 칭해졌다. 따라서 『九卷』, 『鍼經』, 『靈樞』는 동일한 서적의 서로 다른 명칭인 것이다.(余自漢 外7人.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일지사. 2003. pp.115-121.)
- 7)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 8)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 9) 李國淸 外 5人. 內經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 10)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 11) 王洪圖. 內經講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 12) 丹波元簡, 丹波元堅. 素問識·素問紹識. 서울. 一中社. 1991.
- 13) 이용범, 박찬국.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

- 1)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출판사. 1990. p.39.
- 2) 余自漢 外7人.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일지사. 2003. pp.40-41.
- 3)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 “凡所加字, 皆朱書其文, 使今古必分, 字不雜糅.”
- 4)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 “正繆誤者, 六千餘字, 增注義者, 二千餘條.”
- 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陽學說에 대한 研究'를 통하여 三陰三陽의 陰陽속성과 關闔樞 및 氣血多少 등을 논한 것이 있고, 金基郁¹⁴⁾이 '楊上善과 王冰 注釋의 比較論적인 研究'를 통하여 楊上善 주석과 王冰 주석의 차이점을 논한 논문이 있다.

II. 研究方法

19세기에 日本의 仁和寺에서 발견된 『太素』의 版本은 원래 약 8世紀에 日本의 蜂田藥師船人이 唐人의 寫本을 베긴 것을 1151년~1158년 사이에 丹波憲基가 다시 베였고, 1166년~1168년 사이에 丹波賴基가 다시 베끼면서 仁和寺에 보관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36년 이전까지는 二十二卷만 확인 되었으나, 1936년 日本 文化財保護委員會에서 仁和寺의 文物을 정리할 때 다시 卷第十六이 발견 되므로 모두 二十三卷이 되었다. 여기에 福井棣亭이 所藏하던 版本 중에서 卷第二十一과 卷第二十七을 합하여 현재 傳해지는 卷數는 總 三十卷 중에서 다섯 卷이 缺失되어 二十五卷만 現存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군데군데 알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 한다.¹⁵⁾

中國에는 19세기 중엽에 楊惺吾가 仁和寺에 있는 二十三卷의 唐人 古書 抄本을 影寫한 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 版本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에 蕭延平이 柯巽庵의 抄本과 袁忠節의 刻本 및 左笏卿의 版本을 통하여 楊惺吾의 版本을 校正한 것이 가장 最近에 나온 版本이다.¹⁶⁾

본 논문에서는 中國의 蕭延平이 校注를 단 것을 底本으로 삼았는데, 蕭延平이 注를 단 版本에 誤字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仁和寺의 影印本을 위주로 校訂하였으며, 傍點의 표시가 잘못됨으로써 의

미의 전달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여 해석 하였다. 그리고 『太素』에 나오는 原文과 기존에 『內經』의 校本으로 삼고 있는 王冰本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글자 중에 의미가 분명하면서 특징적인 것을 몇 개 선택하여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校勘 서적으로서 『太素』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楊上善이 『內經』 原文에 대하여 注釋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그 중에 後代의 注釋家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注釋을 뽑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醫學理論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III. 本論

1. 校勘 書籍으로서의 特徵

楊上善은 注釋을 하면서 여러 가지 參考文獻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王冰本 이전에 존재했던 『素問』·『九卷』과 『八十一難』·『甲乙經』·『明堂經』 등 『內經』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이외에도 '有本'이나 '一本'이나 '或曰' 등의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內經』의 版本으로 전해진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楊上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서적을 참고하여 注釋하면서 原文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도 함부로 고치지 않고 注釋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太素』가 『內經』의 본 모습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는 反證이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校勘의 例文

(1) 六經의 月別 配屬

『素問·脈解』편에 보면 “少陽所謂心脇痛者, 言少陽盛也, 盛者, 心之所表也. …… 少陰所謂腰痛者, 少陰者腎也, 十月, 萬物陽氣皆傷, 故腰痛也.”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少陽盛也'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少陰者腎也, 十月'이다.

첫째, '少陽盛也'에 대하여 논하면 『太素·經脈病解』편에는 '少陽戌也'로 되어 있다. 『素問』과

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10.

14) 김기욱, 박현국. 楊上善과 王冰 주석의 比較論적인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2001. 14(1).

15) 이용범. 楊上善이 『太素』에 注를 단 時期 및 『黃帝太素』가 전해 내려온 과정. 『東洋醫學』. 1995. 통권 제65호. pp.38-39.

16) 田代華. 校勘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p.34-35.

『太素』의 전후 문장을 살펴보면 ‘太陽寅’, ‘陽明午’, ‘太陰子’ 및 ‘厥陰辰’으로 모두 經絡과 月의 12干支(月建)를 배속하여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에 따른다면 ‘少陽’은 戊로 9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太素』의 원문인 ‘少陽戌’이 옳음을 알 수 있다. 『素問』의 ‘盛’자는 ‘戌’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傳寫 과정 중에 생긴 形誤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少陰者腎也, 十月’에 대하여 논하면 『素問』이나 『太素』의 원문이 모두 ‘少陰者腎也’로 되어 있는데, 전후 문장의 논리상 ‘腎’은 ‘申’과音が 같아서 傳寫과정 중에 생긴 聲誤이며, 또한 少陰經은 腎에 속하므로 전후 문장을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誤謬가 발생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十月’이 『太素』에는 ‘七月’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王冰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醫家들도 『太素』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十月’에 대하여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에 나오는 “萬物陽氣皆傷”¹⁷⁾이라는 문장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十月’을 12辟卦의 卦象으로 보자면 陽氣가 하나도 없는 重地坤卦(☷)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素問』이나 『太素』에 나오는 原文을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 “陰氣在下, 陽氣在上.”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萬物陰陽不定, 未有主也.”라는 내용도 나오며, 특히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陰曆 ‘七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2辟卦의 卦象으로 본다면 동짓달인 子월에 一陽이 始生하는 地雷復卦(☳)가 되고, 차츰 陽이 자라다가 午月이면 一陰이 始生하는 天風姤卦(☴)가 되며, 陰이 점점 자라서 七月이 되면 陰氣가 아래의 內卦에 차고 陽氣가 위의 外卦에 차 있는 天地否卦(☷)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12干支로 표현한다면 ‘申’에 해당하는 것이

다.

原文이 ‘七月’인지 ‘十月’인지에 대하여 당시에도 이미 論難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楊上善의 주석에 나오니, 그가 주하기를 “七月은 陰陽의 氣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아직 정해진 주인이 없는데, 秋氣가 이르기 시작하면서 陽氣가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 十月은 이미 심한 서리가 내린 이후이기 때문에 곧 ‘十月’이라고 한 版本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고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經文은 소홀이 지나칠 수 있는데 『太素』가 발견된 이후에 考證學과 校勘學에 뛰어난 최근의 학자들인 郭靄春이나 胡天雄 등이 『太素』의 원문인 ‘七月’이 옳고 ‘十’은 ‘七’의 形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⁹⁾

또한 『太素』의 楊上善 注에서 ‘有本作十月’이라고 한 것에서 당시에 『內經』으로 전해져 내려온 版本이 최소한 2개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楊上善은 『內經』 別本 중에서 原文이 다른 것에 대하여 根據를 제시하여 그 잘못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關闔樞

『素問·陰陽離合論』에 보면 “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라고 되어 있는데, 『太素·陰陽合』편에는 두 개의 ‘開’자가 모두 ‘關’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王冰 이후에 잘못 전해진 版本의 영향으로 ‘關’을 ‘開’라고 표기하고 주석을 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王冰의 주석을 살펴보면 “開라는 것은 이른바 動靜을 맡고 있는 基이고, 闔이라는 것은 이른바 禁固를 잡고 있는 權이며, 樞라는 것은 이른바 動轉을 주관하고 있는 微이다.”²⁰⁾고 하였다. 여기에서

1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7. “七月, 陰陽氣均, 未有定主, 秋氣始至, 陽氣初奪. …… 十月已降甚霜, 卽知有本作十月者, 非也.”

19)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p.296.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322.

20)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0. “夫開者, 所以司動靜之基, 闔者, 所以執禁固之權, 樞

17) 萬物陽氣皆傷: 蕭延平本 『太素』를 보면 ‘皆’자가 ‘背’자로 되어 있는데, 仁和寺本을 찾아 본 결과 『素問』에서와 같이 ‘皆’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면 ‘闔’과 ‘樞’는 문의 문짝(闔)과 지도리(樞)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開’를 ‘열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動靜을 맡고 있는 기초’라는 설명과는 의미가 잘 연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開’를 만약 ‘關’의 誤字라고 본다면 문의 빗장(關)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로소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內經』의 다른 편을 살펴보다도 ‘關闔樞’가 옳음을 알 수 있으니, 먼저 『靈樞根結』 편을 보면 “不知根結, 五臟六腑, 折關敗樞開闔而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折關敗樞開闔’은 곧 ‘關闔樞’의 기능이 상실되어 생기는 病理的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素問皮部論』에 보면 皮膚의 部分을 구분하면서 사용하는 용어에 “太陽之陽, 名曰關樞. …… 太陰之陰, 名曰關蠡²¹⁾.”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太陽과 太陰에서 공통적으로 ‘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太素』에서와 같이 ‘開闔樞’는 곧 ‘關闔樞’라고 하는 것이 옳음을 알 수 있는데,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門에는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門의 關으로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 둘째는 門의 闔으로 이것은 문짝을 말하는 것인데 開閉하는 것을 주관한다. …… 셋째는 門의 樞인데 轉動하는 것을 주관한다.”²²⁾고 하여 三陰三陽

者, 所以主動轉之微.”

21) 關蠡: 『太素』에는 ‘蠡’가 ‘樞’로 되어 있다. 丹波元簡이注하기를 “‘蠡’는 ‘禁’이 訛傳된 것이다. ‘禁’은 ‘闔’과 같다. 『穀梁傳』 昭八年에 ‘以葛覆質以爲禁’이란 말이 있는데 範寧이注하기를 ‘禁은 門中闔이다’고 하였다. 『釋文』에 ‘禁은 門樞이다’하였다. 『爾雅』에 ‘樞은 闔이다’고 하였다. 『周禮』 考工記의 鄭注에 보면 ‘闔은 古文에서 禁이라 하였는데 곧 門中의 樞이다’고 하였다. ‘關蠡’은 門中의 樞에서 뜻을 취하였는데 左右의 門이 합해지는 곳이다.”고 하였다. 胡天雄이注하기를 “太陽이 關樞이고 太陰이 關蠡인데 『太素』에서와 같이 ‘蠡’를 ‘樞’로 고친다면 모두 ‘關樞’가 되고, 陽明이 害蜚(闔扉)이고 厥陰이 害肩인데 ‘肩’자를 ‘扉’자의 形誤로 본다면 모두 害扉(闔扉)가 되고, 少陽이 樞持이고 少陰이 樞儒인데 ‘持’는 ‘杼’로 고치고, ‘儒’는 ‘樞’로 고친다면 ‘杼’와 ‘樞’는 同音(zhu)이므로 假借로 본다면 모두 樞杼가 된다.”고 하였다.

2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9. “夫爲門者, 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開閉也. …… 三者門樞, 主轉

의 ‘關闔樞’를 빗장(關)과 문짝(闔)과 지도리(樞)에 비유하여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蕭延平이注하기를 “‘太陽爲關’에서 ‘關’자가 『甲乙經』, 『素問』, 『靈樞』에는 모두 ‘開’라고 되어 있다. 日本의 抄本은 모두 ‘關’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關’의 省略字이다. 楊上善이注한 ‘門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를 자세히 살펴보면 ‘主禁’의 뜻으로는 ‘關’자가 뛰어난데, 만약 ‘開’자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다. 『靈樞根結』 편과 『甲乙經經脈根結』 편을 다시 고찰해보면 ‘太陽爲開’의 위쪽에 모두 ‘不知根結, 五臟六腑, 折關敗樞開闔而走.’라는 문장이 있고, 本書 卷十 ‘經脈根結’과 『靈樞』, 『甲乙經』도 이와 같다. 곧 이것은 앞부분에서 ‘關闔樞’ 세 가지를 함께 列舉하고, 뒤에서 다시 ‘爲關’, ‘爲闔’, ‘爲樞’라고 분석하여 그것을 말하였으니, 뒤에 나오는 ‘爲關’의 ‘關’자는 곧 앞에 있는 ‘折關’의 ‘關’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²³⁾고 하였으며, 또한 胡天雄이注하기를 “‘關’을 잘못하여 ‘開’라고 한 것이다. 杜甫의 「早行」이라는 詩에 보면 ‘崩迫關其情’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楊箋은 ‘關, 一作開.’라고 하였다. 王冰의 次注와 杜甫의 詩作은 모두 8世紀 60年代(王冰: 762年, 杜甫: 769年)에 지어졌으므로 두 개의 잘못됨도 역시 같으니 모두 字形이 서로 類似하여 된 것이다.(唐代에는 ‘關’을 ‘關’으로 簡書함) 단지 詩詞에 있어 一字의 잘못은 大旨와는 無關하지만 醫經에서 一字의 잘못은 後世에 訛傳되어 醫學理論의 極大混亂을 조성하기 쉬우므로 慎重하여야 한다.”²⁴⁾고 하였다.

動者也.”

2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59-60. “太陽爲關, 關字 『甲乙經』 『素問』 『靈樞』 均作開. 日本鈔本, 均作開, 乃關字省文. 玩楊注門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主禁之義, 關字爲長, 若開字則, 說不去矣. 再攷 『靈樞·根結』 篇及 『甲乙經·經脈根結』 篇於太陽爲開之上, 均有‘不知根結, 五臟六腑折關敗樞開闔而走’之文, 本書卷十 『經脈根結』 與 『靈樞』 『甲乙』 同, 則是前以關樞闔, 三者并舉, 後復以爲關爲闔爲樞分析言之, 足證明後之爲關關字, 即前之折關關字, 無疑矣.”

24)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55. “此太陽爲關, 關誤作開. 杜甫 「早行」 詩: ‘崩迫關其情’, 楊箋: ‘關, 一

따라서 蕭延平이나 胡天雄 등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素問·陰陽離合論』에 나오는 開闔樞의 ‘開’자는 意味에 있어서나, 또는 『靈樞·根結』 편이나 『素問·皮部論』에 나오는 原文과의 연관성으로 보더라도 『太素』에 나오는 ‘關’자가 더 이치에 합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後代에서 ‘開’자로 잘못 쓰인 이유는 당시에 俗體字가 많이 쓰임으로 인하여 ‘關’자로 쓰이다가, 이것이 傳抄 과정 중에 형태가 비슷한 ‘開’자로 잘못 전해졌음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3) 邪客於足陽明之經

『素問·繆刺論』 편은 繆刺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부분으로 “夫邪客大絡者, 左注右, 右注左, 上下左右, 與經相干, 而布於四末, 其病無常處, 不入於經俞, 命曰繆刺.”라고 하여 繆刺法의 특징은 ‘左病右治, 右病左治’하는 것인데, 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巨刺法과의 차이점은 經脈에 病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巨刺法이고, 繆刺法은 絡脈에 病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素問·繆刺論』에는 전체적으로 絡脈에 病이 있는 것을 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邪客於足陽明之經, 令人鼯衄, 上齒寒.”이라고 하여 ‘足陽明之經’이라고 되어 있어서 經脈에 病이 있는 것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太素·量繆刺』 편에는 ‘經’이 ‘絡’으로 되어 있고, ‘上齒’가 ‘下齒’로 되어 있으며, 또한 新校正에서 주하기를 “全元起本 및 『甲乙經』에는 ‘陽明之經’이 ‘陽明之絡’으로 되어 있다.”²⁵⁾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王冰이 주하기를 “足陽明의 經脈은 鼻의 交頰中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鼻外를 돌아 上齒中으로 들어가고, 다시 돌아 나와서 口脣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아래쪽으로 承漿과 교차하고, 다시 頤後의 아래쪽 모서리를 돌아서 大迎으로 나오고, 頰車를 따라

서 耳前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病이 들면 사람으로 하여금 鼯衄하고 上齒寒하게 한다. 다시 그 經脈은 面部에서 左右가 교차하므로 經脈의 病을 例로 들어서 繆處하는 종류라고 밝힌 것이다.”²⁶⁾고 하였다. 결국 王冰은 足陽明 胃經의 經脈에 病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繆刺法에 포함시킨 이유를 ‘左右交於面部’하는 것 때문에 繆刺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문장에서 전혀 經脈의 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만 經脈의 病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張介賓이 주하기를 “足陽明의 經脈은 鼻의 交頰中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鼻外를 돌아 上齒로 들어가므로 絡脈의 病이 이와 같다.”²⁷⁾고 하여 絡脈의 病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명백하게 經脈의 病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張志聰이 주하기를 “이것은 經脈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마땅히 繆取하여야 한다. ‘經’은 陽明의 經脈을 말한다.”²⁸⁾고 하여 陽明 經脈의 病이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만 經脈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繆取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高世栻의 의견도 이와 같다. 丹波元簡이 이것에 대하여 주하기를 “王冰의 주석이나 張志聰 및 高世栻에 근거한다면 곧 大經의 病을 자침하는 것이니, 巨刺法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지금은 임시로 新校正을 따른다.”²⁹⁾고 하였다.

하지만 『太素』에는 ‘足陽明之絡’이라고 분명하게 絡脈에 病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上齒’도 ‘下齒’라고 되어 있어 經脈의 病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足陽明 豐隆의

作開.’(王: 762年, 杜: 769年) 二字互誤亦同, 皆由字形相似所致(唐代關簡作開). 但詩詞一字之誤, 無關大旨, 醫經一字之誤, 後世以訛傳訛, 容易造成祖國醫學理論上的極大混亂, 不可不慎.”

25)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18. “按全元起本與『甲乙經』, 陽明之經作陽明之絡.”

26)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18. “其脈起於鼻交頰中, 下循鼻外, 入上齒中, 還出俠口環脣, 下交承漿, 却循頤後下廉, 出大迎, 循頰車, 上耳前, 故病令人鼯衄, 上齒寒也. 復以其脈, 左右交於面部, 故舉經脈之病, 以明繆處之類.”

27)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72. “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下循鼻外, 入上齒, 故絡病如此.”

28) 張志聰 編註.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73. “此言經脈之有互交者, 亦當以繆取也. 經謂陽明之經脈也.”

29)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p.352-353. “據王注及志高, 則刺大經之病也, 似與巨刺無別, 今亦仍新校正.”

絡은 別者가 위로 頭에 絡하고, 諸經의 氣와 合하여 아래로 喉嚨에 絡한다. 그러므로 軌로부터 下齒에 入하므로 邪氣가 침입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軌齟하고 下齒가 冷하게 된다. 手陽明經은 下齒中으로 入하고, 足陽明經은 上齒中으로 入하지 下齒로는 入하지 않으니, 지금 말하는 齒寒은 足陽明絡이 下齒에 入한 것이다. 또한 絡의 病이 생기는 곳을 살펴보면 大絡이 行하는 곳이 아니라 大絡의 支分인 小絡에서 發病하는 것이다.”³⁰⁾ 고 하여 분명하게 絡脈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歷代 醫家들은 『太素』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긴 하였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新校正에서는 全元起本이나 『甲乙經』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여 ‘陽明之絡’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고, 丹波元簡은 이 篇의 내용이 繆刺法에 해당되므로 ‘陽明之絡’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잘못된 校勘의 例文

(1) 四時에 따른 五味배속

『素問·金匱真言論』편에는 五臟이 四時에 호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東方青色, 入通於肝, …… 其味酸”이라는 내용과 “南方赤色, 入通於心, …… 其味苦.”라는 내용이 나온다. 肝은 酸味와 연결되고 心은 苦味와 연결되는데, 五行의 연계 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이 『太素·陰陽雜說』에는 “東方青色, 入通於肝, …… 其味辛. 赤色, 入通於心, …… 其味苦酸.”이라고 하여 肝이 辛味와 연결되고 心은 苦酸味와 관련되어 있다고 나온다. 楊上善은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나름대로의 注釋을 가하고 있는데, 肝의 味가 辛味라고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肝의 味는 바로 酸味인데, 辛味라고 말한 것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 말하기를 金은 木을 剋하여 妻로 삼는다는 것이 있으므로 肝에는 辛의 氣가 있는 것이다.”³¹⁾고 하였고, 心의 味가 苦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酸味는 苦味の 母가 되는데, 母와 함께 말하였으므로 苦酸이 되는 것이다.”³²⁾고 하였다.

楊上善의 이러한 설명은 지나치게 原文을 教條視하여 잘못된 原文까지도 억지로 해석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당시 전해온 原文이 五行 이론상 順理에 어긋남을 의심하면서도 함부로 原文을 校正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所以然을 찾아서 原文에 충실하게 注釋하려고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 風勝則腫과 寒勝則浮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瀉.”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太素·陰陽大論』에는 “風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附, 濕勝則濡.”라고 하여 ‘則動, 熱勝’의 4글자가 빠져있고, ‘浮’는 ‘附’라고 되어 있으며, ‘濡’자 다음에 ‘瀉’자가 빠져 있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太素』에는 六氣중에 ‘熱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 ‘寒勝則浮’에서 ‘浮’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① 風勝則動, 熱勝則腫.

『太素』에는 ‘熱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서 ‘風勝則腫’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楊上善의 주를 살펴보면 “邪風이 皮膚에 침입하면 곧 臈腫이 된다. 邪熱이 皮膚를 燥하게 하면 곧 皮乾하고 無汗한다.”³³⁾고 하였다.

여기에서 楊上善은 ‘腫’이라는 증상은 風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乾’이라는 증상은 熱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

30) 楊上善 撰注. 仁和寺 影印本. 黃帝內經太素(中).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503. “足陽明豐隆之絡, 別者上絡頭, 合諸經之氣, 下絡喉嚨, 故從軌, 入於下齒, 所以邪客, 令人軌齟, 下齒冷也. 手陽明經, 入下齒中; 足陽明經, 入上齒中, 不入下齒. 今言齒寒者, 足陽明絡, 入下齒也. 又尋絡之生病處, 不是大絡行處者, 乃是大絡支分, 小絡發病者也.”

3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44-45. “肝味正酸, 而言辛者, 於義不通. 有云: 金剋木爲妻, 故肝有辛氣.”

3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6. “酸爲苦母, 并母言之, 故有苦酸.”

3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 “邪風客於皮膚, 則爲臈腫也. 邪熱燥於皮膚, 則皮乾无汗.”

지만 『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六氣와 病症의 관계 중에서 風-腫과 熱-乾에 연결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風-動과 熱-腫의 관계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면, 『素問·風論』에서 “風者, 善行而數變.”이라 하였고, 『素問·痺論』에서 “風氣勝者, 爲行痺.”라고 하여 風과 관련된 병증은 주로 動하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腫’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火와 관련된 것으로 『內經』의 여러 편에서 癰腫이나 瘡瘍은 火熱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는 水와 관련된 것으로 『素問·評熱病論』에 보면 “諸有水氣者, 微腫先見於目下也.”라고 하였다. 결국 ‘腫’이라는 것은 陽氣의 윤행이 막히면서 寒이 왕성하게 되고, 인체는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소동을 시키기 위한 熱이 생성되면서 부어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太素』의 原文이 脫簡된 것을 楊上善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寒勝則浮

‘寒勝則浮’의 의미를 살펴보면 歷代 醫家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胗’의 뜻을 살펴보면 당연히 腐이다. 寒勝하면 肉이 熱해지면서 肉은 당연히 腐한다.”³⁴⁾고 하였다. ‘胗’의 원래 뜻은 ‘발동’을 의미하지만, 『太素』에는 ‘胗’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腐腫’은 浮腫과 같은 뜻으로 ‘胗’와 ‘浮’는 서로 假借字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王冰은 주하기를 “寒勝하면 陰氣가 玄府에 結하고, 玄府가 閉密되면 陽氣가 內攻하므로 浮하게 된다.”³⁵⁾고 하였고, 張介賓이 주하기를 “寒勝하면 陽氣가 運行하지 못하니 脹滿하여 浮虛한 病이 된다.”³⁶⁾고 하여 ‘陽氣’가 제대로 運行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國卿이 주하기를 “‘浮’는 ‘焮’와 옛날에는 通用하였다. 『詩·大雅·生民』에 보면 ‘蒸之浮浮’라는 것이 있는데, 注하여 말하기를 ‘浮浮는 곧 焮焮이다’고 하였다. 『爾雅·釋訓』에는 ‘浮浮, 蒸也.’라고 하였고, 『說文』에는 ‘焮, 蒸也.’라고 하였으니, ‘蒸’은 火氣가 上行하는 것이다. 이것에 근거한다면 ‘寒勝則浮’는 마땅히 ‘寒勝則焮’인 것이니 곧 寒邪가 偏勝하여 發熱하는 것이다. 바로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因於寒, 體若燔炭.’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寒勝則焮’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例證이다.”³⁷⁾고 하였다. ‘焮’자의 의미가 불길기 위로 오른다는 의미이므로 ‘浮’자와 서로 상통한다. 하지만 『素問·生氣通天論』을 살펴보면 “因於寒,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이라고 되어 있어서 ‘燔炭’은 燻에 해당하는 증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因於寒’하면 ‘體若燔炭’하기 때문에 ‘寒’과 ‘焮’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郭霽春이 주하기를 “‘浮’는 마땅히 ‘疔’(音肘)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浮’와 ‘胗’와 ‘府’의 세 글자는 옛날에 通用하였는데, ‘府’와 ‘疔’는 형태가 비슷해서 쉽게 잘못 사용되었다. 『呂氏春秋·盡數』에 보면 ‘處腹則爲脹爲府’라는 것이 있는데, 席世昌과 桂馥은 모두 말하기를 ‘府應作疔’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先秦의 古書에서 ‘府’와 ‘疔’를 서로 혼동한 한 가지 예가 된다. 본 편의 ‘疔’자는 처음에 ‘府’라고 잘못되었다가, 또 다시 ‘浮’로 잘못된 것이다. 『太素』에서 ‘胗’라고 한 것도 역시 이 ‘疔’자의 誤字인 것이다. ‘疔’에는 腹中이 絞結한다는 뜻이 있으니 『說文系傳校勘記』에 보면 ‘寒勝則疔’가 보이는데, 이것은 寒氣가 偏勝하면 心腹이 絞痛한다는 것이다.”³⁸⁾고 하였다. 따라서 ‘寒勝則疔’

3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 “檢義當腐, 寒勝肉熱, 肉當腐.”
 35)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4. “寒勝則陰氣結于玄府, 玄府閉密, 陽氣內攻, 故爲浮.”
 36)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7. “寒勝者, 陽氣不行, 爲脹滿浮虛之病.”

37) 李國卿 外 4人. 素問疑識. 서울. 一中社. 1992. p.39. “浮, 焮古通. 『詩·大雅·生民』: ‘蒸之浮浮’, 注曰: ‘浮浮卽焮焮’ 『爾雅·釋訓』: ‘浮浮, 蒸也.’ 『說文』: ‘焮, 蒸也.’ ‘蒸, 火氣上行也.’ 据此, ‘寒勝則浮’ 當爲 ‘寒勝則焮’, 卽寒邪偏勝而發熱, 正如 『素問·生氣通天論』所說 ‘因于寒, 體若燔炭’ 這是說明 ‘寒勝則焮’ 的最好例證.”
 38)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p.32. “浮疑當作疔(音肘), ‘浮, 胗, 府’ 三字古通.”

라는 것은 곧 寒이 왕성하면 少腹痛이 생긴다는 것인데, 『素問痺論』에 보면 “痛者, 寒氣多也, 有寒故痛也.”라고 하였으니 寒勝하면 곧 痛症이 생기므로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寒勝則疔’라고 하여 少腹痛이라고 본다면 너무 지엽적인 것만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內經』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疔’자를 끌어당겨서 해석한다는 것은 牽強附會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논자의 견해로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寒極生熱, 熱極生寒.”이라 하였고, 『素問水熱穴論』에서 “夫寒盛則生熱也.”라고 하였으니, 寒이 왕성해지면 인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熱이 생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太素』에서는 ‘腑’의 의미를 항상 ‘腐’의 뜻으로 보았으니, 楊上善의 주를 보더라도 “寒勝肉熱, 肉當腐.”라고 하여 ‘腑’가 말하는 것은 곧 熱로 인하여 腐敗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寒勝則浮’라고 한 것은 결국 寒이 원인이 되어 왕성해지면, 반발작용으로 熱이 모이면서 ‘浮’나 ‘腐’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文字에 대한 것

仁和寺에 있는 『太素』의 古抄本이 抄를 마친 年度는 대략 8世紀이다. 이 시기에는 俗體字가 대량으로 쓰여서 유행된 때로 그 중에서 특히 南北朝와 隋唐 五代의 시기에 가장 甚하였다. 俗體字는 漢字 六書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뜻과 符號 및 筆劃을 증감하고 偏旁을 변환하였으니 많은 俗體字는 모두 訛字라고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楊上善도 이것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고 俗體字를 本體字와 혼동하여 잘못 주석하고 있는 글자가 몇 개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예를 들자면 ‘湏’는 ‘凝’의 俗體字인데 『太素調食』에서 주하기를 “湏音侯, 水涯”라고 하였고, ‘湏’은 ‘淵’의 俗體字인데 『太素

寒熱相移』에서 주하기를 “湏, 他典切, 垢濁也.”라고 해석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古代의 文字에는 많은 假借字가 있었으니 『太素』에서 많이 사용한 假借字를 몇 가지 예를 들면 ‘癰’을 ‘癰’이라고 표기하였고, ‘顛’을 ‘囟’이라고 표기하였으며, ‘貌’를 ‘兕’라고 표기하였고, ‘銳’를 ‘兌’라고 표기한 것 등이 이것이다.

2. 楊上善 注釋의 特徵

楊上善의 『太素』 原文은 『內經』의 가장 古代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楊上善의 注釋 또한 현존하는 『內經』에 대한 注釋중에서 가장 빠르고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楊上善은 전후 문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原文에 대하여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注釋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心開竅於耳와 心氣通於舌에 대한 내용

『素問·金匱真言論』에 보면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靈樞·脈度』에 보면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보면 『素問』에서는 ‘心開竅於耳, 腎開竅於二陰’이라고 되어 있고, 『靈樞』에서는 ‘心氣通於舌, 腎氣通於耳’라고 되어 있어서 ‘耳’가 心에도 속하고 腎에도 속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內經』에서 五臟과 五官과의 일반적인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肝-目, 心-舌, 脾-口, 肺-鼻, 腎-耳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素問』에서 말하고 있는 ‘心開竅於耳’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율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王冰은 “舌이 心의 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舌의 용도가 竅가 아니므로 ‘耳’라고 말한 것이다. 「繆刺論」에서 말하기를 ‘手少陰之絡, 會於耳中.’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뜻을 취한 것 같다.”³⁹⁾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긴 하였

‘府’與‘疔’形近易誤. 『呂氏春秋·盡數』‘處腹則爲脹爲府’ 席世昌, 桂馥并謂‘府應作疔’. 這就是先秦古書‘府, 疔’相混的一個例證. 本篇之‘疔’字, 是初誤爲‘府’, 又誤爲‘浮’. 『太素』作‘腑’, 亦是‘疔’的誤字. ‘疔’有腹中絞結的意思, 見『說文系傳校勘記』. ‘寒勝則疔’, 就是寒氣偏勝, 心腹絞痛.”

39)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6. “舌爲心之官, 當言于舌, 舌用非竅, 故云耳也. 「繆刺

지만 명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고, 張介賓의 주석을 보더라도 “『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心在竅爲舌, 腎在竅爲耳.’라고 하였으니 ‘舌’은 본래心に 속하지만 ‘耳’는心和腎이 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⁰⁾고만 설명하고 있지 별다른 설명이 없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素問·金匱眞言論』편을 설명하면서 “『九卷』에서는 ‘心氣通舌’이라고 말하였는데, 舌은竅가 아니므로 耳와 통한다고 한 것이다.”⁴¹⁾고 하여 王冰과 같은 주석을 하고 있으며, 『靈樞·脈度』편에 나오는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를 설명하면서 “舌은 비록 竅가 아니지만 手少陰의 別脈이 經脈을 따라서 心中으로 들어가고 위로 舌本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心氣는 舌과 통하는 것이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赤色入通於心, 開竅於耳’라고 하였다. 腎은 水이고 心은 火인데, 水火가 相濟하니 心氣가 耳와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竅으로써 말한다면 곧 心은 耳로써 竅를 삼는 것이다. 또한 手太陽小腸經은 心の 表脈인데 耳中으로 들어가므로 心은 開竅에 있어서는 耳가 되는 것이다.”⁴²⁾고 하였다.

여기에서 楊上善은 心이 ‘耳’에 開竅하는 이유에 대해서 王冰과 같이 ‘舌’은 竅가 아니므로 ‘耳’와 통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心腎의 水火相濟에 대한 설명과 함께 心の 腑인 手太陽小腸經脈이 耳中으로 들어가는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진일보적인 주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肺惡寒과 腎惡燥에 대한 견해

論》曰, 手少陰之絡, 會于耳中. 義取此也.”

40)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8. “『陰陽應象大論』曰, 心在竅爲舌, 腎在竅爲耳. 可見舌本屬心, 耳則兼乎心腎也.”

4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5. “『九卷』云: 心氣通舌. 舌既非竅, 通於耳.”

4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86. “舌雖非竅, 手少陰別脈, 循經入心中, 上系舌本, 故得心氣通舌也. 『素問』‘赤色入通於心, 開竅於耳’者, 腎者水也, 心者火也, 水火相濟, 心氣通耳, 故以竅言之, 卽心以耳爲竅. 又手太陽, 心之表脈, 入於耳中, 故心開竅, 在於耳也.”

『素問·宣明五氣』편에 보면 “五臟所惡: 心惡熱, 肺惡寒, 肝惡風, 脾惡濕, 腎惡燥, 是言五惡.”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五臟所惡’는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六氣가 자기 자신을 길러주기도 하지만, 相生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도리어 싫어함을 말하는 것이다. 『內經』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五臟과 六氣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肝-風, 心-熱, 脾-濕, 肺-燥, 腎-寒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肺惡寒’과 ‘腎惡燥’라고 하여 五臟과 六氣의 배합이 서로 바뀌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素問』에서 말하기를 ‘西方生燥, 燥生於肺.’라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肺는 燥를 싫어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肺惡寒, 腎惡燥’라고 한 것은 ‘燥’는 秋에 존재하지만 秋는 ‘寒의 시작’이 되고, ‘寒’은 冬에 존재하지만 冬은 ‘燥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肺는 秋에 존재하지만 肺는 寒이 심해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였고, 腎은 冬에 존재하지만 腎은 燥가 심해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그 시작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⁴³⁾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楊上善은 臟腑와 五行 배합이론에 벗어난 原文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所以然을 자신의 識見으로 밝히고자 苦心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학자인 胡天雄은 楊上善의 이러한 주석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그가 주하기를 “‘五臟所惡’를各家들은 모두 五氣로써 해석하여 風氣는 肝에 통하고, 熱氣는 心에 통하고, 濕氣는 脾에 통한다고 하였으나, ‘肺惡寒’과 ‘腎惡燥’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설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왜곡하여 牽強附會하여 통하게 한 것이니 楊上善의 『太素』에 나오는 注가 하나의 전형적인

4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88. “『素問』曰: 西方生燥, 燥生於肺. 若爾則肺惡於燥. 今此肺惡寒, 腎惡燥者, 燥在於秋, 寒之始也; 寒在於冬, 燥之終也. 肺在於秋, 以肺惡寒之甚, 故言其終; 腎在於冬, 以腎惡燥之甚, 故言其始也.”(참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腎惡燥之甚’에서 ‘之’자는 蕭延平本과 仁和寺本에 모두 ‘不’로 되어 있지만, 전후 문장의 뜻으로 보건대 ‘不’자는 ‘之’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抄書를 하면서 잘못 옮겨 쓴 것이 확실하므로 ‘之’자로 고쳐서 해석하였다.)

에이다. 나는 『太素』에 나오는 楊上善의 注를 반복해서 수십 번 읽어보았지만 마침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대개 여기에 나오는 ‘五臟所惡’는 五臟에 病이 있을 때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飲食과 起居 및 調理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肝惡風’은 肝에 病이 있을 때 風을 맞는 것을 禁한다는 것으로 肝에 病이 있으면 肝의 精氣가 內亂되기 때문에 本氣가 이미 虛해져서 邪氣가 침입하기 쉽다. 「生氣通天論」에 나오는 ‘風客淫氣，精乃亡，邪傷肝也.’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心惡熱’은 心病이 대부분 火熱로 病이 되는 것으로 火熱의 病일 때에는 대체로 寒飲食과 寒衣가 마땅하고 溫衣와 熱食을 禁하는 것이다. 심지어 熱病이 나을지 얼마 안 되어 餘熱이 아직 깨끗이 없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역시 강제로 熱物을 먹여서 餘熱이 다시 熾盛해지거나 遺熱이 물러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肺惡寒’은 肺에 病이 있을 때 寒飲食과 寒衣를 禁하는데, 이른바 『難經』에서 말한 ‘形寒飲冷則傷肺’라 한 것에 해당한다. ‘脾惡濕’은 脾病이 대부분 濕邪가 근심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濕地나 濡衣로써 濕을 돕는 것을 禁하는 것이다. ‘腎惡燥’는 腎에 病이 있으면 精氣가 속에서 虛해지기 때문에 불에 달군 熱食이나 燥烈한 것과 같은 陰精을 손상시키는 食物을 금하는 것이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五臟所惡’는 五臟에 病이 있을 때 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五臟이 天의 五氣를 싫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⁴⁴⁾고 하여 ‘五臟所惡’에 대하여 病理적으로

해석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胡天雄의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왜 다른 오장 즉 肝-風, 心-熱, 脾-濕과 같이 세 개의 臟은 五臟과 六氣와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데, 肺-寒과 腎-燥처럼 두 개의 臟만 다른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內經』이나 『難經』에 나오는 有關한 原文을 인용해서 설명했을 뿐이다.

胡天雄이 楊上善의 주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까닭은 蕭延平本에 나오는 楊上善의 주석에 誤字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肺在於秋，以肺惡寒之甚，故言其終；腎在於冬，以腎惡燥不甚，故言其始也.”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腎惡燥不甚’은 앞에 나온 ‘肺惡寒之甚’과 서로 對句를 이루고 있는 문장으로 ‘不’자는 ‘之’자의 誤字임이 분명하다. 그래야만 肺가 寒이 심해짐을 싫어한다는 것과 腎이 燥가 심해짐을 싫어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仁和寺本에도 역시 ‘不’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형태가 비슷하여 後代에서 抄書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胡天雄도 ‘不’자가 ‘之’자의 誤字임을 알았다면 楊上善의 주석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참고로 仁和寺本에도 이러한 形誤나 聲誤가 몇 군데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것은 文字가 後代에 전해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3) 苦走血과 鹹走骨 및 苦走骨과 鹹走血

『靈樞·九鍼論』에 보면 “五走，酸走筋，辛走氣，苦走血，鹹走骨，甘走肉，是謂五走也。五裁，病在筋無食酸，病在氣無食辛，病在骨無食鹹，病在血無食苦，病在肉無食甘.”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五味가 입으로 들어가면 五臟이 주관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肝-酸味-筋·心-苦味-血·脾-甘味-肉·肺-辛味-氣·腎-鹹味-骨의 관계가 성립함을 말하는 것이고, 적당하게 섭취하면 몸에 유익하지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苦走血，鹹走骨’에 대한 내용이 『素問·宣明五氣』편과 『靈樞·五味論』편에는 ‘苦走骨，鹹走血’로 서로 바뀌어 있

44)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p.172-173. “五臟所惡，各家皆据五氣爲解，風氣通于肝，熱氣通于心，濕氣通于脾。然至肺惡寒，腎惡燥，則其說難通，不得不委曲附會以通之。楊上善之注『太素』，算是一個典型的例子。……余反復讀之數十遍，終不知其所云。……蓋此五臟所惡，乃指五臟有病時之所惡，泛指飲食起居護理而言。肝惡風，是指肝有病時，禁當風，肝有病時，肝之精氣內亂，本氣既虛，則邪氣易湊。「生氣通天論」‘風客淫氣，精乃亡，邪傷肝也。’即指此；心惡熱，是說心病多火熱爲病，火熱之病，多宜寒飲食寒衣，禁溫衣熱食，甚至熱病初愈，餘熱未淨，亦不能強食熱物，致令餘熱復熾，或遺熱不退；肺惡寒，是說肺有病時，禁寒飲食寒衣，以形寒飲冷之傷肺也；脾惡濕，是指脾病多濕邪爲患，禁濕地濡衣以助濕；腎惡燥，是指腎有病時，精氣內虛，禁燥熱食燥烈傷陰之品。總之，五臟所惡，是指五臟有病時之所禁，非謂五臟惡天之五氣。”

다는 사실이다. 原文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宣明五氣』：“五味所禁，辛走氣，氣病無多食辛；鹹走血，血病無多食鹹；苦走骨，骨病無多食苦；甘走肉，肉病無多食甘；酸走筋，筋病無多食酸，是謂五禁.”

『靈樞·五味論』：“酸走筋，多食之令人癢；鹹走血，多食之令人渴；辛走氣，多食之令人洞心；苦走骨，多食之令人變軀；甘走肉，多食之令人悅心.”

이것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皇甫謐이 주하기를 “鹹味는 먼저 腎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走血’이라고 말한 것은 腎이 三焦와 합하기 때문이다. 血脈이 비록 肝心에 속하지만 中焦의 道⁴⁵⁾에서 생기므로 鹹味가 들어가면 ‘走血’한다고 한 것이다. ……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走骨’한다고 말한 것은 水火가 相濟하기 때문에 骨氣가 心에도 통하기 때문이다.”⁴⁶⁾고 하여 ‘鹹走血’에 대해서는 腎과 三焦와의 臟腑相通 관계를 이용하여 血이 中焦에서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牽強附會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苦走骨’은 水火相濟로써 설명하고 있으니 一面의 이치가 있다고 본다.

또 張志聰이 주하기를 “心은 血을 주관하고 潤下한 것이 鹹味가 되니, ‘鹹走血’이라는 것은 水氣가 위쪽으로 心과 사귀는 것이다. 血病에 많이 먹게 되면 水가 도리어 火를 勝하는 것이다. …… 腎은 骨을 주관하고 炎上한 것이 苦味가 되니, ‘苦走骨’이라는 것은 火氣가 아래쪽으로 腎과 사귀는 것이다. 骨病에 많이 먹게 되면 火氣가 도리어 勝하게 되는 것이다. …… 心과 腎은 水火의 氣라서 때가 되면 서로 既濟하므로 주관하는 것이 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⁴⁷⁾고 하여 水火交濟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太素·調食』편에 나오는데, 楊上善은 ‘鹹走血’과 ‘苦走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鹹走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腎은 骨을 주관하니 鹹味는 骨로 走하는데, 血로 走한다고 말한 것은 血은 水이기 때문이다.”⁴⁸⁾고 하여 血의 성분이 五行으로 水인 것에서 腎과의 연관관계를 찾았고, 둘째 ‘苦走骨’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苦味는 火味이니 헤아려보면 血로 走하는데, 血에서 資料를 취하여 骨을 단단하게 하므로 苦味が 骨로 走하는 것이다.”⁴⁹⁾고 하여 苦味の 堅固하게 하는 성질에서 骨의 단단함과 연관관계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다.

楊上善은 事物의 성질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것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楊上善의 이러한 주석은 牽強附會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鹹走血’에서 말하는 ‘血’은 인체의 영양물질인 血液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구성물질인 皮·血脈·肌肉·筋·骨의 五體중에 하나인 ‘血脈’을 가리키는 것이고, ‘苦走骨’에서는 藥物의 氣味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苦味の 성질에는 堅固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清熱시키거나 瀉下시키는 여러 가지 성질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張志聰의 주석에서와 같이 水火交濟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左右者，陰陽之道路也。水火者，陰陽之徵兆也.”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寒極生熱，熱極生寒.”이라고 하였듯이 水火의 기운은 亢盛하면 반대되는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자연계에서 관찰해본다면 무더위가 한참인 여름에 水의 기운인 장마가 온다거나, 추운 겨울일수록 火의 기운인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을 보더라도 水火의 기운은 極하게 되면 서로 상

45) 中焦의 道: 이것은 血이 생성되려면 中焦의 腐熟水穀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46) 皇甫謐.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827-831. “鹹先走腎，此云走血者，腎合三焦，血脈雖屬肝心，而爲中焦之道，故鹹入而走血矣. …… 苦走心，此云走骨者，水火相濟，故骨氣通于心也.”

47) 張志聰 編註.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207-208. “心主血，潤下作鹹，鹹走血者，水氣上交於心也. 血病而多食之，則水反勝火矣. …… 腎主骨，炎上作苦，

苦走骨者，火氣上交於腎也. 骨病而多食之，則火氣反勝矣. …… 蓋心腎水火之氣，時相既濟，故所走互更.”

48) 楊上善 撰註. 蕭延平 校註.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9. “腎主於骨，鹹味走骨，言走血者，以血爲水也.”

49) 楊上善 撰註. 蕭延平 校註.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9. “苦是火味，計其走血，以取資骨令堅，故苦走骨也.”

대방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苦味’와 ‘鹹味’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오는 五臟의 ‘苦欲補瀉’에 대한 것이다. 이 篇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脾苦濕, 急食苦以燥之’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苦以燥之’는 ‘鹹以燥之’의 誤字라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所欲’의 내용 중에는 五臟에 대한 五味가 모두 언급되어 있지만, ‘所苦’에서는 苦味가 중복되어 나오면서 鹹味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고, 또 같은 篇에 있는 원문의 내용 중에 “脾色黃, 宜食鹹.”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脾臟과 鹹味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의 丹波元堅⁵⁰⁾은 ‘苦以燥之’는 ‘鹹以燥之’의 誤字임을 주장하였고, 이것에 대한 國內의 논문 중에는 嚴東明⁵¹⁾이 연구하여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 중에 ‘苦欲補瀉’에 대한 것이 『太素』의 現存하는 25卷 중에는 완전히 빠져 있어 정확한 原文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였다.

3. 楊上善의 醫學理論

楊上善은 經絡學說, 奇經八脈說, 關闔樞說, 養神說, 心不受邪說, 命門說, 人迎氣口脈說 등에 있어서 당시까지 전해져온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정립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絡學說

經絡學說은 한의학의 핵심사상으로 經脈의 循行

과 인체에 생기는 病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楊上善은 經脈의 循行과 관련하여 病症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楊上善의 注釋중에서 經絡學說에 대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手少陰經脈은 心中에서 起한다

『靈樞·經脈』 篇에 보면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出屬心系, 下膈, 絡小腸.”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十二經脈 중에서 나머지 十一經脈은 모두 經脈의 起始點이 本臟과는 거리가 떨어져있는 別途의 곳에서 일어나서, 本臟腑에 屬하고 表裏관계에 있는 臟腑에 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手少陰心經만은 특이하게 ‘起於心中, 出屬心系’라고 하여 ‘起始點’과 ‘屬’하는 것을 같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이 주석하기를 “그것은 心은 神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五神의 主體자가 되는데 스스로 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거쳐서 脈을 만들어서 들여올 필요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곳에서 經脈이 나오는 것이다.”⁵²⁾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五臟은 각각 五神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神을 主體하는 것이 心臟이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 손상을 받아서 五臟의 神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養神’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心’은 곧 物質적인 개념보다는 精神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歷代 醫家들은 아무도 이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楊上善은 전후 문장의 배열을 생각하면서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足少陰經脈의 流注경로

『素問·陰陽離合論』 篇에 보면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少陰經과 太陽經은 서로 表裏經이 되면서

50) 丹波元堅. 素問紹識. 서울. 一中社. 1991. p.448. “是五臟中, 宜食苦者有二, 而無一宜食鹹者. 且末段列五臟色味, 正與此段相發, 而有脾色黃宜食鹹句. 然則此苦字, 爲鹹字之誤, 明矣. 所謂鹹傷血, 鹽勝血者, 皆燥中之驗也. 蓋鹹之訛苦, 自唐以前既然, 故撰運氣僞經者, 沿襲不辨, 于至真要大論, 類復言之, 而金元諸家, 更主張之, 遂至使苦燥之說, 入人肺腑, 牢不可破. 且今試之, 苦寒之藥, 實未見有燥中之害矣. 一字之誤, 以生千古之惑, 有如此者.”

51) 엄동명. 『素問·藏氣法時論』의 ‘苦以燥之’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5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03. “以其心神, 是五神之主, 能自生脈, 不因餘處生脈來入, 故自出經也.”

신체의 後面으로 순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靈樞·經脈』편에 나오는 腎經의 經脈 노선을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靈樞·經脈』편에 보면 “腎足少陰之脈, …… 上股內後廉, 貫脊, 屬腎, 絡膀胱.”한다고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貫脊은 양쪽에 있는 經脈이 모두 脊骨을 관통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올라가서는 각각이 한쪽의 腎臟에 속하고, 다시 함께 膀胱으로 絡하는 것이다.”⁵³⁾고 하였으니 腎臟의 經脈은 腹部의 앞쪽으로 經脈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背部의 脊椎속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원문을 살펴보면 “其直者, 從腎, 上貫肝鬲, 入肺中, 循喉嚨, 俠舌本.”이라고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곧바로 肝과 橫隔膜을 관통하여 통과하는 것을 ‘貫’이라고 부른다.”⁵⁴⁾고 하였으니 뒤쪽에 있는 腎臟으로부터 위쪽으로 바로 肝과 橫隔膜을 뚫고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원문을 살펴보면 “其支者, 從肺出絡心, 注胸中.”이라고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肺로부터 下行하여 心系를 돌아서 心에 絡하고 胸中으로 流注한다.”⁵⁵⁾고 하여 胸中에 있는 膻中穴에서 처음으로 몸의 前面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다음에 오는 手厥陰心包經과 交會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足少陰腎經의 腹部에 있는 穴들은 실제로 腹部上에 있는 穴자리가 아니고 脊椎間에 있는 穴자리를 앞쪽으로 끌어당겨 표시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서로 表裏가 되는 足太陽膀胱經脈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膀胱足太陽之脈 …… 其直者, 從顛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膂, 絡腎屬膀胱.”이라 하여 巔頂部에서 腦로 絡하는 것이 있고 밖으로 나와서 脊椎를 끼고서 허리까지 내

러오는 膀胱1線으로 순행하는 노선이 있으며, 다시 원문을 살펴보면 “其支者, 從膊內左右, 別下貫脾, 過髀樞, 循髀外後廉, 下合膻中.”이라 하여 膀胱2線의 순행노선을 표현하고 있으니 膀胱經은 腎經과는 반대로 속으로 들어가는 經脈의 노선은 없고 신체의 後面 바깥쪽으로부터만 經脈이 흐름을 알 수 있다.

(3) 足厥陰經脈의 流注경로

『靈樞·經脈』편에 보면 “肝足厥陰之脈, …… 其支者, 復從肝, 別貫鬲, 上注肺.”라고 되어 있다. 十二經脈의 유주순서로 보면 手太陰肺經은 “起於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라고 되어 있으므로 中焦에서 起始하여 肺에 屬하므로, 마지막인 足厥陰肝經은 마땅히 中焦에서 마쳐서 如環無端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肝經의 유주를 보면 ‘上注肺’ 하면서 마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이 自問自答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 “肺脈인 手太陰經脈은 中焦에서 起하여 차례대로 四藏과 六府의 經脈에 모두 相接하여 起하고 있는데, 오직 足厥陰經脈만 다시 肝으로 돌아가서 肺中으로 유주하여 手太陰經脈과 相接하지 않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다만 經脈이 생기는 것은 血氣에서 내려 받아야 하는데, 血氣가 생기는 것은 中焦의 倉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手太陰經脈은 中焦로부터 血氣를 받은 이후에 모든 經脈을 유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焦는 手太陰經脈이 血氣를 받는 곳이지 經脈의 차례대로 相接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經脈이 環周하는 것이 足厥陰經脈에 이르면 經脈中으로 들어가서 手太陰經脈과 相接하여 순행하는 것이지 中焦로 들어가지는 않는다.”⁵⁶⁾고 하였다. 결국 『靈樞·營衛生會』편에 보면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한다는 내용이 있듯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中焦에서 ‘蒸津液’하여

5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06. “貫脊, 謂兩箱二脈, 皆貫脊骨而上, 各屬一腎, 共絡膀胱.”

5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07. “直貫肝鬲而過稱貫”

5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07. “從肺下行, 循心系, 絡於心, 注胸中也.”

5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2. “肺脈手太陰, 從中焦起, 以次四藏六府之脈, 皆相接而起, 唯足厥陰脈, 還迴從肝, 注於肺中, 不接手太陰脈, 何也? 但脈之所生, 稟於血氣, 血氣所生, 起中焦倉廩, 故手太陰脈, 從於中焦, 受血氣已, 注諸經脈. 中焦乃是, 手太陰受血氣處, 非是脈次相接之處, 故脈環周, 至足厥陰, 注入脈中, 與手太陰脈, 相接而行, 不入中焦也.”

精微로운 것이 肺의 經脈으로 가서 血로 변화하고 이것이 十二經脈을 따라 全身을 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十二正別 순행의 特徵

『太素·卷九·經脈正別』편에 보면 十二正別의 運行路線과 表裏가 상응하여 離合하고 出入하는 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楊上善은 아주 상세한 注釋을 달면서 十二正別의 명칭과 그 순행의 特徵을 아주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十二正別의 명칭을 붙인 방식과 離合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十二大經(十二經脈)에는 다시 正別이라는 것이 있다. 正은 六陽經이 별도로 운행하여 다시 府經(本經)과 합하는 것을 말하고, 別은 六陰經이 별도로 운행하여 府經과 합한 이후에 本經(藏經)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하니 그러므로 ‘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足少陰과 足厥陰은 비록 ‘正’이라고 부르지만 別經에서 나온 것으로 本經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오직 이 두 가지 陰經만 ‘正’으로 삼고 나머지 陰經은 모두 ‘別’인 것이다. ‘或以諸陰爲正’이라는 것은 黃帝 이후에 撰集하는 사람이 두 가지 版本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前後에서 때때로 ‘或·有言·一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이 定할 수 없는 학설이 있기 때문이었다.”⁵⁷⁾고 하여 ‘正’과 ‘別’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였는데, 과연 현재의 『靈樞·經別』편을 살펴보니 모두가 ‘正’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別’에 대한 구분이 없음을 볼 수 있고, 다음 原文에 “足少陰之正……或⁵⁸⁾以諸陰之別, 皆爲正.”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서 別途의 版本이 존재했음을

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十二正別의 운행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足三陽의 大經은 頭로부터 足에 이르는데, 그 正別은 足으로부터 頭로 향하고, 그 別은 모두 足指에 있는 大經의 終處로부터 別道로 上行하여 그 出處까지 함께 이르고 다음에 ‘屬’과 ‘合’을 논하고 있다. 足三陰의 大經은 足으로부터 胸에 이르는데, 그 正別은 足으로부터 上行하여 頭로 향하고 역시 그 出處에 이르러서 ‘屬’과 ‘合’을 말하고 있다. …… 手의 六經은 오직 이 一經(手太陽正)만 下行하고 나머지는 모두 上行하여 頭로 향한다.”⁵⁹⁾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十二經脈의 正別이 運行하는 곳은 十二大經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배우는 자가 대부분 뜻을 두지 않으므로 질병이 생기는 곳을 診察할 때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⁶⁰⁾고 하여 十二經別의 유주도 十二經脈의 유주만큼 중요하고, 특히 細密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熟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奇經八脈

醫史學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難經』에서부터인데, 『內經』에서는 여덟 개의 經脈들이 여러 篇에 흩어져서 나타나고 있다.⁶¹⁾ 그 중에서 楊上善은 『內經』에 나오는 督脈과 任脈 및 衝脈의 流注노선이 『難經』의 설명에서 비롯된 기존의 관점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22. “十二大經, 復有正別. 正, 謂六陽大經別行, 還合府經; 別, 謂六陰大經別行, 合於府經, 不還本經, 故名爲別. 足少陰 足厥陰 雖稱爲正, 生別經, 不還本經也, 唯此二陰爲正, 餘陰皆別. 或以諸陰爲正者, 黃帝以後, 撰集之人, 以二本莫定. 故前後時有稱 或·有言·一曰, 皆是不定之說.”

58) 或: 『靈樞·經別』편에는 ‘或’이 ‘成’으로 되어 있는데, ‘成’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或’과 ‘成’이 모양이 비슷해서 생긴 形誤이다.

59)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123-124. “足三陽大經, 從頭至足, 其正別則從足向頭, 其別皆從足指大經終處, 別而上行, 並至其出處, 而論屬合也. 足三陰大經, 從足至胸, 其正別則從足上行向頭, 亦至其出處, 而言屬合. …… 手之六經, 唯此一經下行, 餘並上行向頭也.”

6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25. “此十二經脈, 正別行處, 與十二大經, 大有不同, 學者, 多不在意, 所以診病生處, 不能細知也.”

61) 윤창렬,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서울. 周珉出版社. 2002. pp.518-519.

(1) 督脈의 流注경로

『難經·28難』에서는 督脈의 流注경로에 대하여 “督脈者，起於下極之俞，并於脊裏，上至風府，人屬於腦。”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督脈의 순행이 下極의 俞穴인 會陰穴에서 起始하여 長強穴을 지나 위쪽으로 脊椎 속을 지나서 風府穴에 이르고 腦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하지만 『素問·骨空論』에 보면 督脈의 流注경로를 이것과는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經絡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먼저 督脈의 流注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素問·骨空論』에서 말하기를 “督脈者，起於少腹，以下骨中央，女子入繫廷孔，其孔溺孔之端也。其絡循陰器，合纂間，繞纂後，別繞臀，至少陰，與巨陽中絡者，合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與太陽起於目內眦，上額交顛，上入絡腦，還出別下項，循肩膊內，俠脊，抵腰中，入循膂，絡腎。其男子循莖，下至纂，與女子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督脈이 起始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먼저는 ‘起於少腹’이라는 것이 나오고, 중간쯤에 보면 다시 한 번 ‘起於目內眦’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보자면 督脈은 任脈의 流注노선과 같이 少腹에서 일어나서 척추의 앞쪽을 따라 目內眦까지 이르는 하나가 있고, 目內眦에서 交顛하여 등 뒤쪽으로 내려가서 腎에 絡하는 또 하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王冰이 주하기를 “‘太陽起於目內眦’로부터 아래쪽의 ‘女子等’에 이르기까지의 原文 내용은 督脈의 別絡이다. 督脈이 直行하는 것은 尻로부터 위쪽으로 脊裏를 돌아서 鼻下에 있는 人中穴에 도달하는 것이고, 少腹으로부터 直上하여 兩目の 아래쪽 중앙에 이르는 것은 任脈의 운행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督脈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任脈·衝脈·督脈은 이름만 다르지 實體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⁶²⁾고 하였다. 王

冰은 任脈·衝脈·督脈을 ‘一源而三歧’라고 하여 그 起始點이 모두 같은데, 그것이 갈라지면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이지 그 實體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靈樞·營氣』편에 보면 十二經脈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肺부터 肝까지의 순환을 마치면서 마지막부분에 “其支別者，上額循顛，下項中，循脊入胝，是督脈也，絡陰器，上過毛中，入膂中，上循腹裏，入缺盆，下注肺中，復出太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督脈의 순환을 前後로 다 함께 설명하고 있다. 日本의 丹波元簡은 이것에 대하여 주하기를 “앞에 나온 문장의 예에 근거하자면 ‘上循腹裏’와 ‘入缺盆’의 사이에 마땅히 ‘是任脈也’라는 네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骨空論』에 보면 任脈과 督脈은 一源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任脈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다.”⁶³⁾고 설명하고 있다.

楊上善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주하기를 “『素問』과 『九卷』의 내용이 서로 증명하듯이 督脈이 逆방향으로도 순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古本을 살펴보면 마침내 이것을 任脈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⁶⁴⁾고 하여 督脈도 逆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말하기를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督脈을 脊中에 해당하는 유일한 하나의 經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⁶⁵⁾고 하여 督脈의 순행을 脊中으로 흐르는 하나로만 보는 것을 수정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衛氣와 營氣의 순행을 보더라도, 衛氣의 운행범위가 營氣의 운행범위보다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 먼저 『靈樞·營衛生會』편에 보면 “營在

62)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21. “自與太陽起於目內眦，下至女子等，並督脈之別絡也。其直行者，自尻上循脊裏，而至於鼻下人中，自其少腹直上，至兩目之下中央，並任脈之行，而云是督脈所繫。由此言之，則任脈衝脈督脈，名異而同體也。”

63) 丹波元簡. 靈樞識. 서울. 一中社. 1991. p.677. “據上文之例，此下當有是任脈也四字，然骨空論，任督互稱，以其爲一源也，故不別著任脈也。”

6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3. “二經相證，督脈之逆顯然。又按考古本，竟於此爲任脈之言，而有不識。”

6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4. “舊來相傳，爲督脈當脊中，唯爲一脈者，不可爲正也。”

脈中, 衛在脈外.”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營氣의 운행은 十二經脈을 따라 하루 동안 사람 몸을 五十周 움직이고 마치면 다시 시작하는 한정된 순환을 하는 반면에 衛氣의 움직임은 그 성질이 標疾滑利하기 때문에 脈道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하게 움직임을 볼 수 있다. 衛氣의 움직임을 보면 세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靈樞·衛氣』편에 보면 “其浮氣之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於經者, 爲營氣. 陰陽相隨, 外內相貫, 如環之無端.”이라고 하여 營氣와 함께 운행하는 것이 있고, 둘째 『靈樞·衛氣行』편에 보면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라고 하여 낮과 밤에 따라 순행노선을 달리하는 운행이 또 하나 있으며, 셋째 『素問·痹論』편에 보면 “衛氣者, 水穀之悍氣也, 其脈標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肓膜, 散於胸腹.”이라고 하여 全身에 퍼져서 外邪를 방어하고 溫衛작용을 하는 것이 또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⁶⁾ 따라서 陽에 해당하는 것이 陰에 해당하는 것 보다 활동범위가 넓으며, 陽 속에는 陰을 포함하고 있듯이 督脈의 순환 속에는 任脈의 순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督脈의 병증을 살펴보다도 『素問·骨空論』에서 말하기를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癥瘕遺溺噎乾.”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앞쪽으로 순행하는 任脈이나 衝脈과 관련된 증상과 유사하고, 『靈樞·經脈篇』에서 말하기를 “實則脊強, 虛則頭重”등은 뒤쪽으로 순행하는 督脈의 증상에 해당하니 앞 뒤쪽으로 모두 질병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督脈의 운행은 任脈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인체 전체의 陽氣를 監督하고 調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2) 任脈의 流注경로

『難經·28難』에 보면 任脈의 流注노선에 대하여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라고 되어 있으며, 『素問·骨空論』에

는 ‘至咽喉’ 다음에 ‘上頤循面入目’의 여섯 글자가 더 있다. 『難經』에서는 任脈의 순행이 中極의 아래쪽인 會陰穴에서 起始하여 毛際를 지나 腹部 속을 따라 상승하여 咽喉에서 마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素問』에서는 여기서 또다시 위쪽의 얼굴로 가서 目으로 들어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은 『明堂』을 인용하여 주하고 있는데, “目下에 있는 巨膠와 承泣의 左右 四穴은 陽蹻脈과 任脈이 만나는 곳이니 任脈에도 또한 分岐하여 上行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고 하여 任脈이 陽蹻脈과 만나고, 다시 足陽明의 承泣穴을 통하여 目內眥에 있는 足太陽의 睛明穴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督脈과 交會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任脈의 순행에 관한 내용이 『靈樞·五音五味』편에 보면 또 나오는데,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⁶⁸⁾,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⁶⁹⁾, 會於咽喉, 別而絡唇口.”라고 하여 ‘胞中’에서 起始하여 ‘唇口’에서 마침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背裏’가 『太素』에는 ‘脊裏’로 되어 있고, ‘循腹右上行’에서 ‘右’자는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素問·骨空論』에서는 任脈이 ‘起於中極之下’ 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起於胞中’이라고 하였는데, 楊上善은 이것에 대하여 주하기를 “‘中極之下’가 곧 ‘胞中’이다. …… 이것은 곧 任脈의 起處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⁷⁰⁾ 고 설명하고 있고, 또 주하기를 “任脈과 衝脈의 두 가지 經脈은

6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9. “『明堂』言: 目下巨膠承泣, 左右四穴, 有陽蹻脈任脈之會, 則知任脈亦有, 分岐上行者也.”

68) 背裏: 『素問·骨空論』에서 王冰이 『鍼經』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注한 곳에는 ‘脊裏’라고 되어 있으며, 『太素』에도 역시 ‘脊裏’라고 되어 있으므로, ‘背’자는 ‘脊’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形誤임이 확실한 것 같다.

69) 循腹右上行: 『素問·骨空論』에서 王冰이 『鍼經』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注한 곳에는 ‘循腹各行’이라고 되어 있고, 『太素』에는 ‘腹’자 다음에 ‘右’자가 없다. 따라서 ‘右’자는 ‘各’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形誤이거나, 또는 생략하는 것이 의미가 더 분명한 것 같다.

7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9. “但中極之下, 卽是胞中, …… 是則任脈起處同也.”

66) 王洪圖, 內經講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83-84.

上行하면서 비록 나누어지지만 순행을 시작하는 곳과 마치는 곳은 두 가지 經脈이 같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經穴圖를 보면 任脈은 오직 한 가지 길이고, 衝脈은 나누어져서 양쪽 길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또한 의존할 바가 못 된다.”⁷¹⁾고 하여 衝脈과 任脈의 起始點과 終止點이 같으며, 그 순행 노선이 前後로 갈라지면서 차이가 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하여 설명하기를 “任脈과 衝脈의 두 經脈은 包中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누어져서 두 가지 길이 되는데: 한 가지 길은 後行하여 안으로 脊裏로 붙어서 위로 올라가며; 한 가지 길은 前行하여 바깥쪽으로 떠서 腹을 따라서 위로 脣口에 연락한다.”⁷²⁾고 하여 任脈과 衝脈의 순행하는 노선은 脊裏로 순행하는 것도 있고, 腹部쪽으로 순행하는 것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衝脈의 流注경로

『難經·28難』에 보면 衝脈의 流注노선에 대하여 “衝脈者, 起於氣衝, 并足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也.”라고 되어 있고, 『素問·骨空論』에는 ‘足陽明’이 ‘少陰’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먼저 張介賓이 주하기를 “衝脈은 氣街에서 起하여 足少陰經과 함께 橫骨 大赫 등의 11穴과 만난다. ‘俠臍上行, 至胸中而散’이라는 것은 衝脈이 앞쪽으로 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少陰의 經脈은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하는데 衝脈도 역시 脊內로 들어가기 때문에 ‘伏衝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衝脈이 뒤쪽으로 순행하는 것은 당연히 少陰經과 함께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⁷³⁾

고 하여 衝脈이 앞과 뒤쪽으로 모두 순행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순행하는 것은 ‘少陰’經과 함께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丹波元簡이 注하기를 “『素問』에서는 ‘並少陰之經’이라 하였고, 『難經』에서는 ‘並足陽明之經’이라고 하였다. 少陰經은 俠臍하여 左右가 각五分이고, 陽明經은 俠臍하여 左右가 각二寸이다. 氣衝은 또한 陽明의 脈氣가 發하는 곳이다. 이것으로 유추한다면 衝脈은 氣衝에서 起하여 陽明과 少陰 두 經脈의 사이에 있으면서 俠臍하여 上行하는 것이 이치에 있어 명확하다.”⁷⁴⁾고 설명하고 있다.

『太素』에는 이것에 대한 原文은 빠져 있고 다만 楊上善이 注釋에서 말하기를 “皇甫謐이 『素問』의 기록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衝脈, 起於氣衝, 並陽明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八十一難』의 설명과 같은 것인데, 『素問』을 검사해보니 이러한 문장이 없으니 아마 別本에서 나온 것 같다.”⁷⁵⁾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皇甫謐이 『甲乙經』을 編注할 당시까지만 해도 『素問』에서는 ‘陽明’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말하기를 “衝脈이 위쪽 방향으로 순행하는 것은 任脈과 더불어 같다. …… 氣街는 곧 關元의 아래쪽에 있으니 衝脈의 氣街는 곧 關元으로 들어가서 上行하는 것이다. 비록 咽에까지 이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뜻은 역시 같다.”⁷⁶⁾고 하여 衝脈이 任脈의 關元穴을 따라 상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楊上善이 계속해서 주하기를 “『素問』에서 말하기를 ‘衝脈與陽明宗筋, 會於氣街.’라고 하였으니

7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9. “任衝二脈, 上行雖別, 行處終始, 其經是同也. 舊來爲圖, 任脈唯爲一道, 衝脈分脈兩箱, 此亦不可依也.”

7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9. “任衝二脈, 從包中起, 分爲二道: 一道後行, 內着脊裏而上; 一道前行, 浮外循腹, 上絡脣口也.”

73)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02. “衝脈, 起於氣街, 並足少陰之經, 會於橫骨大赫等十一穴,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此言衝脈之前行者也. 然少陰之脈,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衝脈亦入脊內, 爲伏衝之脈, 然則衝脈之後行者, 當亦並少陰無疑也.”

74)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326. “素問曰, 並足少陰之經, 難經, 却言並足陽明之經, 況少陰之經, 俠臍左右各五分. 陽明之經, 俠臍左右各二寸. 氣衝又是陽明脈氣所發. 如此推之, 則衝脈自氣衝起, 在陽明少陰二經之內, 俠臍上行, 其理明矣.”

7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49. “皇甫謐錄『素問』云: 衝脈起於氣街, 並陽明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此是『八十一難』說, 檢『素問』無文, 或可出於別本.”

7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52. “衝脈上行與任脈同. …… 氣街, 近在關元之下, 衝脈氣街, 卽入關元上行, 雖不言至咽, 其義亦同也.”

곧 衝脈과 陽明의 宗筋은 氣街에서 만나니 ‘并陽明之經’ 하여 상행한다는 것과 그 뜻이 다르지 않다.”⁷⁷⁾고 하여 ‘陽明’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靈樞·動輸』편에 보면 “衝脈者，十二經之海也，與少陰之大絡，起於腎下，出於氣街，循陰股內廉，邪入臍中，循脛骨內廉，並少陰之經，下入內踝之後，入足下；其別者，邪入踝，出屬跗上，入大指之間，注諸絡，以溫足脛，此脈之常動者也。”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衝脈이 下腹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流注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氣街’에서부터 아래쪽으로 流注하고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楊上善이 注釋하기를 “‘衝’은 壯盛한 모습이다. 衝脈은 臍下에서 起하여 하나의 길은 下行하여 足指間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길은 上行하여 脣口에 연락한다. 이처럼 그 氣가 壯盛하므로 衝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⁷⁸⁾고 하여 衝脈의 流注경로를 ‘氣街’에서 起始하여 上下로 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衝脈의 순환은 氣街에서 起始하는데, 上行하는 것은 後天之本에 해당하는 足陽明 胃經과 함께 任脈을 따라서 상승함을 알 수 있고, 下行하는 것은 先天之本에 해당하는 足少陰 腎經을 따라서 하강함을 알 수 있다.

3) 關闔樞⁷⁹⁾

關闔樞에 관한 내용은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편에 보이는데, 歷代 醫家들의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內經』에는 ‘太陽爲開’로 되어 있는 것이 『太素』에는 ‘太陽爲關’이라

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 用語인지에 대한 것이 한가지이고, 둘째로 『素問』과 『太素』의 原文에는 ‘少陰爲樞’라고 되어 있지만, ‘厥陰爲樞’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또 다른 한가지이다.⁸⁰⁾ 여기에서는 『太素』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楊上善이 바라보는 ‘三陰三陽의 개념’과 ‘關闔樞의 기능’ 및 ‘關闔樞의 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三陰三陽의 개념

三陰三陽의 명칭은 陰陽을 다시 세단계로 구분하여 ‘陽’을 太陽(三陽)-陽明(二陽)-少陽(一陽)으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陰’을 厥陰(一陰)-少陰(二陰)-太陰(三陰)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것으로, 한의학에서 經絡學說과 運氣學說 및 『傷寒論』의 六經病證 등과도 관련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론이다. 하지만 「運氣7篇」은 王冰이 後代에 補入한 것이어서 『太素』에는 運氣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楊上善은 주로 臟腑와 12經絡과 관련하여 三陰三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楊上善의 주석을 위주로 하여 三陰三陽의 생성 및 關闔樞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楊上善은 『太素·經脈病解』편에서 三陰三陽의 陰陽屬性에 대하여 1년 12개월에 배속하여 그 變化상을 『周易』에 나오는 ‘12辟卦’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三陰三陽은 결국 陰陽을 세단계로 나누어서 그 消長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한 “陽化氣，陰成形.”에서 알 수 있듯이 ‘陽’은 氣의 盛衰로써 그 變化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陰’은 形의 多少로써 그 變化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먼저 三陽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陽化氣’하므로 陽은 氣의 變化하는 모습으로 관찰하는 것이니, 자라나서 펼쳐졌다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太陽(三陽)-陽明(二陽)-少陽(一陽)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7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52. “『素問』又云: 衝脈與陽明宗筋會於氣街. 卽衝脈與陽明宗筋, 會氣街已, 並陽明之經而上, 其義不異也.”

7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52. “衝, 壯盛兒. 其脈起於齊下, 一道下行入足指間, 一道上行絡於脣口, 其氣壯盛, 故曰衝脈也.”

79) 關闔樞: 지금의 『內經』에는 ‘開闔樞’라고 되어 있으나, 『太素』와 기타 『內經』의 다른 편 및 내용상으로 보아 ‘開闔樞’는 ‘關闔樞’의 오류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太素』의 내용을 따라 ‘關闔樞’라고 표기하였다.

80) 윤창렬. 醫哲學. 서울. 周珉出版社. 2005. pp.331-370. 이용범, 박찬국.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6. 10. pp.468-481. 김인락. 關闔樞와 關闔樞.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5. 9. pp.11-17.

楊上善이 ‘太陽’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三陽이 생하는 寅의 시기에는 그 陽이 이미 크므로 ‘太陽’이라고 부른다. …… 三陽이 盛한 곳으로 나아가면서 三陰과 다투는 것으로 점점 커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陰도 오히려 싸우는 것이다.”⁸¹⁾고 하였다. 寅月을 太陽이라고 하며 地天泰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陽이 陰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氣가 旺盛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므로 ‘三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陽明’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陽明은 三陽이 成長한 것이다. 午는 五月인데 陽이 왕성한 상태로 廣明에 있으므로 ‘陽明’이라고 부른다. 五月에는 陽이 왕성한 상태에서 一陰爻가 생하기 시작하니 곧 이것이 陽中之陰이다.”⁸²⁾고 하였다. 午月을 陽明이라고 하며 天風姤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太陽이 완전히 지나서서 왕성한 陽의 기운을 활짝 펼치고 나서 陰에게 서서히 자리를 물려주는 모습이므로 ‘二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少陽’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戊는 九月인데 九月은 陽이 적으므로 ‘少陽’이라고 부른다. …… 陰氣가 이미 왕성하니 陽氣는 장차 다하려고 하는 때이다. …… 九月은 陰氣가 바깥에서 왕성하므로 萬物의 氣가 지극함을 다하여 墮落하려고 하니 곧 萬物의 氣가 陽을 지나서 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⁸³⁾고 하였다. 戌月을 少陽이라고 하며 山地剝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氣를 다 消耗한 이후에 남아 있는 모습이므로 氣의 消耗가 거의 없고 오히려 지키려는 모습이니 ‘一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음으로 三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陰成形’하

므로 陰은 形의 크기가 작은 것에서 점차 커지는 순서대로 厥陰(一陰)-少陰(二陰)-太陰(三陰)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厥陰’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三月은 陰氣가 장차 다하려고 하는 때이므로 ‘厥陰’이라고 부른다. 三月은 陽이지만 厥陰의 經脈은 속에 있으므로 ‘陽中之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邪氣가 厥陰의 經脈에 침입하면 頰疔이 되는 것이다.”⁸⁴⁾고 하였다. 辰月을 厥陰이라고 하며 澤天夫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陰이 하나 남아 있으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一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少陰’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七月은 秋氣가 이르기 시작하므로 ‘少陰’이라고 부른다. 七月의 시기에는 三陰이 이미 일어났으니 萬物의 陽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⁸⁵⁾고 하였다. 申月을 少陰이라고 하며 天地否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陽이 쇠퇴하고 陰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여 陰과 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므로 ‘二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太陰’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十一月은 陰氣가 크므로 ‘太陰’이라고 부른다. …… 十一月에는 陰氣가 속에 모여 있고, 비록 一陽이 생하기 시작하지만 氣가 미약하여 바깥으로 통할 수는 없다.”⁸⁶⁾고 하였다. 子月을 太陰이라고 하며 地雷復卦(☱)에 비유하고 있는데, 陰이 가장 많은 亥月을 지나서 一陽이 이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陰의 크기가 큰 때이므로 ‘太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陽은 太陽-陽明-少陽으로 나누어서 관찰하고, 陰은 厥陰-少陰-太陰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데, ‘陽化氣’하므로 陽은 소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氣가 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넓게 퍼졌다가 사라지는 순서대로 三陽 - 二

8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113-114. “三陽生, 寅之時, 其陽已大, 故曰太陽也. …… 三陽向盛, 與三陰戰, 得大得上, 而陰猶爭也.”
8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5. “陽明, 三陽之長也. 午爲五月, 陽之盛也, 在於廣明, 故曰陽明. 五月盛陽, 一陰爻生, 卽是陽中之陰也.”
8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114-115. “戊爲九月, 九月陽少, 故曰少陽也. …… 陰氣已盛, 陽氣將盡. …… 九月陰氣外盛, 故萬物之氣, 極畢墮落, 則萬物之氣, 去陽之陰也.”

8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8. “三月, 陰氣將盡, 故曰厥陰. 三月爲陽, 厥陰脈在中, 故曰陽中之陰. 邪客厥陰之脈, 遂爲頰疔.”
8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7. “七月, 秋氣始至, 故曰少陰. …… 七月之時, 三陰已起, 萬物之陽已衰.”
8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16. “十一月, 陰氣大, 故曰太陰. …… 十一月, 陰氣內聚, 雖有一陽始生, 氣微未能外通”

陽 - 一陽의 이름을 붙인 것이며, ‘陰成形’하므로 陰은 모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形이 소모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여 形이 가장 큰 것에 이르게 되는 순서대로 一陰 - 二陰 - 三陰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하여 陽이 盛하면 陰이 衰해지고, 陰이 盛하면 陽이 衰해지는 陰陽消長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太陽과 陽明을 ‘量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陽明이 가장 크므로 ‘三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氣가 자라기 시작하는 순서’대로 봤을 때는 太陽이 더 큰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太陽을 ‘三陽’이라고 하고 陽明을 ‘二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 關闔樞의 機能

『素問·陰陽離合論』에 보면 黃帝가 “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離合’이라는 것은 分離되고 合한다는 뜻으로 ‘陰陽이라는 것이 어떻게 三陰三陽으로 나누어져서 기능을 발휘하다가 一陰一陽으로 합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岐伯은 이것에 대해서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 厥陰之表, 名曰少陽.”이라고 하여 뒤쪽에는 少陰-太陽이 있고, 앞쪽에는 太陰-陽明이 있으며, 그 사이에 厥陰-少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表裏관계로 三陰三陽의 공간적인 위치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三陽之離合也, 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 ……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關, 厥陰爲闔, 少陰爲樞.”라 하여 三陰三陽의 기능인 關闔樞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楊上善은 關闔樞를 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三陽의 離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門에는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門의 關으로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膀胱脈인 足太陽脈은 津液을 禁하는 것을 주관하여 津液이 毛孔에까지 이르도록 하므로 關이 된다. 둘째는 門의 闔으로 이것은 문짝을 말하는 것인데 開閉하는 것을 주관한다. 胃脈인 足陽明脈은 眞氣가 머물러서 滋息하게하고 反復하

면서도 留滯함이 없으므로 關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門의 樞인데 轉動하는 것을 주관한다. 膽脈인 足少陽脈은 筋이 諸骨을 綱維하는 것을 주관하여 그것을 轉動하게 하므로 樞가 된다.”⁸⁷⁾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三陽經에 해당하는 六腑는 內部에서 만들어져 있는 영양물질을 소모하여 外部에서 인체를 護衛할 뿐만 아니라, 外部에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內部에 精微로운 물질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太陽經(關)과 같이 주로 만들어진 영양분(津液)을 毛孔에 까지 보내어 바깥을 호위하는 關의 기능을 하거나, 陽明經(闔)과 같이 외부의 음식물을 받아 들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關의 기능을 하거나, 少陽經(樞)과 같이 만들어진 영양분을 단단히 지켜서 뼈에까지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그것의 轉動을 쉽게 하는 樞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三陰의 離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三陽은 外門이 되고, 三陰은 內門이 된다. 內門도 역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門의 關이니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脾藏의 足太陰脈은 水穀의 氣를 禁하는 것을 주관하여 속으로 輸納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므로 關이 된다. 둘째는 門의 闔으로 開閉하는 것을 주관한다. 肝藏의 足厥陰脈은 神氣의 出入을 지키는 것을 주관하여 通塞함에 따라 悲樂하므로 關이 된다. 셋째는 門의 樞이니 動轉하는 것을 주관한다. 腎藏의 足少陰脈은 津液을 運行하는 것을 주관하여 모든 經脈을 통하게 하므로 樞가 된다.”⁸⁸⁾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三陰經에 해당하는 五

8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9. “夫爲門者, 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 主禁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開閉也. 胃足陽明脈, 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 主筋綱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8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60-61.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 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藏足厥陰脈, 主守神氣出入, 通塞悲樂,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藏足少陰脈, 主行津液, 通諸經脈, 故爲樞者也.”

臟은 內部에 精微로운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外部로 사용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함을 볼 수 있다. 즉 三陰經의 기능은 太陰經(關)과 같이 내부로 전해진 영양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關의 기능을 하거나, 厥陰經(關)과 같이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을 소모하면서도 가장 氣化된 모습인 神氣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는 關의 기능을 하거나, 少陰經(樞)과 같이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樞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3) 關闔樞의 病症

『靈樞·根結』편에 보면 “不知根結，五藏六府，折關敗樞開闔而走.”라고 하여 關闔樞의 病症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關闔樞의 병적인 상황을 折關·敗樞·開闔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먼저 三陽의 病症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原文에 “關折則肉節殯⁸⁹⁾，而暴疾起矣.”라고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太陽은 骨氣를 주관하면서 關이 된다. 그러므로 骨氣가 꺾이면 肉節이 속에서 부패하고, 肉節이 속에서 부패하므로 暴病이 일어나는 것이다.”⁹⁰⁾고 하였다. 여기에서 ‘骨氣’를 주관한다는 것은 少陰經과 함께 인체의 後面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陽의 關으로써 인체를 護衛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暴疾’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原文에 “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疾起矣.”라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陽明은 肉氣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肉氣가 折損되면 곧 正氣를 禁用할 수 없으므로 身이 痿厥해지는 것이니, 늘어져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은 곧 陽明의 闔이 꺾인 것이다. 止氣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行氣하여 滋息하게 할 수 있는 것은 眞氣의 중요한 작용이다. 陽明의 闔이 꺾이면 곧 眞氣가 留滯하여 사용되지 못하

므로 邪氣가 머물러서 痿疾이 일어나는 것이다.”⁹¹⁾고 하였다. 여기에서 ‘肉氣’를 주관한다는 것은 太陰經과 함께 인체의 前面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陽의 闔으로써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痿疾’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原文에 “樞折即骨繇而不安於地.”라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少陽은 筋을 주관하는데, 筋은 骨節을 묶어준다. 骨節의 氣가 이완되어 묶어주지 못하므로 骨搖하는 것이니, 骨搖하면 곧 少陽의 樞가 꺾인 것을 알 수 있다.”⁹²⁾고 하였다. 여기에서 ‘筋’을 주관한다는 것은 厥陰經과 함께 인체의 側面에 위치하여 ‘肉’과 ‘骨’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陽의 樞로써 骨節을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骨繇’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三陰의 病症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原文에 “關折則倉廩無所輸膈洞.”이라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太陰은 水穀을 주관하여 身肉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太陰의 脈氣인 關이 꺾이면 곧 水穀이 운행되어지지 못하므로 ‘倉無輸’라고 말한 것이다. 수송되는 것이 없으니 膈氣가 虛弱해지고 洞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氣가 不足해져서 病이 생기는 것이다.”⁹³⁾고 하였다. 여기에서 ‘資身肉’한다는 것은 陽明經과 함께 인체의 前面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陰의 關으로써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김으로 ‘膈洞’의 증상이 생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原文에 “闔折則氣施而喜悲.”라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厥陰은 筋을 주관하는데 厥陰의 筋氣가 늘어지면 喜悲를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다

89) 肉節殯: 『靈樞·根結』에는 ‘殯’이 ‘濱’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太素』를 따라 ‘濱’으로 고쳤다. 郭霽春이 주하기를 “『太素』에는 ‘濱’이 ‘濱’으로 되어 있고, 『甲乙經』과 『素問·陰陽離合論』의 新校正本에서 『九墟』를 인용한 곳에서는 모두 ‘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다.

9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61. “太陽主骨氣爲關, 故骨氣折, 肉節內敗. …… 肉節內敗, 故暴病起.”

9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61. “陽明主肉主氣, 故肉氣折損, 則正氣不能禁用, 卽身痿厥, 痿而不收, 則知陽明闔折也. 能止氣不洩, 能行氣滋息者, 眞氣之要用也. 陽明闔折, 則眞氣稽留不用, 故邪氣居之, 痿疾起也.”

9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62. “少陽主筋, 筋以約束骨節. 骨節氣弛, 無所約束, 故骨搖, 骨搖則知少陽樞折也.”

9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162-163. “太陰主水穀以資身肉, 太陰脈氣關折, 則水穀無由得行, 故曰倉無輸也. 以無所輸, 膈氣虛弱, 洞洩無禁, 故氣不足而生病也.”

.”94)고 하였다. 여기에서 ‘筋’을 주관한다는 것은 少陽經과 함께 인체의 側面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陰의 關으로써 마지막 남은 神氣를 지키지 못하면 ‘喜悲’의 증상이 생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原文에 “樞折則脈有所結而不通.”이라 되어 있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少陰은 骨을 주관하는데, 骨氣에 손상이 있으면 少陰의 經脈이 흐르지 않게 되므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結은 곧 少陰의 絡이 막히는 것이다.”95)고 하였다. 여기에서 ‘骨’을 주관한다는 것은 太陽經과 함께 인체의 後面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陰의 樞로써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津液)을 經脈을 통하여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막힘으로써 ‘脈結不通’하는 증상이 생기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三陰三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하나는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의 表裏관계로 보아서 經絡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太陽-太陰, 陽明-厥陰, 少陽-少陰의 關關樞樞관계로 보아서 經絡을 기능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陰陽을 空間과 機能적으로 동시에 살펴보면 인체의 後面에는 太陽經과 少陰經이 흐르고 있는데, 太陽經은 바깥을 흐르면서 ‘主禁津液 及於毛孔’하여 인체를 外部의 邪氣로부터 방어하면서 護衛하는 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肉節殞하여 暴疾起’하는 것이고, 少陰經은 척추 속을 흐르면서 ‘主行津液 通諸經脈’하여 끊임없이 組織의 구성구석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中心樞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脈有所結하여 不通’하는 것이다. 인체의 前面에는 陽明經과 太陰經이 흐르는데, 陽明經은 ‘令眞氣止息 復無留滯’하여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영양물질을 만들

어 내면서 쉬지 않는 關의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氣無所止息하여 痿疾起’하는 것이고, 太陰經은 ‘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하는 것이니 陽明經에서 만들어진 水穀의 영양물질을 몸속으로 옮겨서 지키고 잃지 않는 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倉廩無所輸하여 腸洞’하는 것이다. 인체의 側面에는 少陽經과 厥陰經이 흐르는데, 少陽經은 ‘主筋綱維諸骨 令其轉動’하는 것이니 인체의 外部에서 樞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骨繇하여 不安於地’하는 것이고, 厥陰經은 ‘主守神氣出入 通塞悲樂’하는 것으로 精神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니 內部에서 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氣施하여 喜悲’하는 것이다.

4) 養神을 강조

楊上善은 隋代 말기에서 唐代 초기까지 생존했던 哲學家이며 醫學家이다. 그의 철학저작은 『舊唐書·經籍志』와 『新唐書·藝文志』에 실려 있는데, 老子和 莊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저작물은 이미 모두 亡失되었다. 다만 『太素』에 나오는 注 중에서 살펴보면 楊上善은 老子和 莊子뿐만 아니라 『周易』에 대하여 대단히 정통하고 익숙하였으며, 항상 『周易』의 思想을 운용하여 生理와 病理를 해설하는 부분이 자주 나온다.96) 게다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隋代에는 佛敎사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났었고, 唐代에는 道敎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道敎사상과 동시에 佛敎사상도 매우 크게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楊上善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老·莊사상과 함께 佛敎사상을 핵심으로 하여 ‘養神’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97)

(1) 神의 生成

『靈樞·本神』편에 보면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9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63. “厥陰主筋, 厥陰筋氣緩縱, 則無禁喜悲.”

9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63. “少陰主骨, 骨氣有損, 則少陰之脈不流, 故有所結不通. 結, 卽少陰絡結也.”

96)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49.

97)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pp.38-39.

생명이 남녀가 媾精을 함으로써 남녀 쌍방의 ‘精’이 서로 결합하여 ‘形體’가 생기며, 形體가 생긴 이후에 ‘精神’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精神’도 물질의 일종인 ‘精’에 의해서 생기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고, 歷代의 醫家들도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楊上善이 이 내용을 注釋하면서 말하기를 “雌雄의 兩神이 相搏하여야만 함께 하나의 形體를 만드는 것이다. [精은] 나의 身形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精’이라고 부르고, 곧 이 兩精이 相搏하여 함께 하나의 形體를 만드는데, 하나의 形體 중에 있는 靈을 ‘神’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인체의 微妙함이다.”⁹⁸⁾고 하였다. 楊上善은 새로운 한 生命이 생기기 전에 존재하였던 것을 ‘精’이라 하고, 形體 가운데 신령스러운 것을 ‘神’이라 하였는데, “斯乃身之微也”라고 표현하여 ‘神’이 존재하기 때문에 形體가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스로 自問 自答하면서 ‘神’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어 말하기를 ‘神’이라고 하는 것은 이 ‘精’ 중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어딘가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內經』을 살펴보면 다만 ‘神傷’이나 ‘神去’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여기에서 ‘神生’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지 처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보면 精이 결합할 때 神氣가 들어와서 依託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곧 먼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理致에 있어서 虛妄하지 않다. 그러므로 孔子께서 그 有知와 無知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신 所以然⁹⁹⁾을 헤아려보면 다 그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佛陀만이 이것의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

다고 볼 수 있으니 의지할 만하다.”¹⁰⁰⁾고 하였다.

최근 중국의 『內經』 연구가인 錢超塵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것은 佛敎에서 말하는 輪回에 대한 것으로, 輪回의 방법은 남녀가 媾精할 때 ‘神’이 ‘精’에 가서 붙어야만 사람이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⁰¹⁾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人體의 형성에 있어서 ‘兩精’이 결합해야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神’이 들어와서 작용해야 완전한 인격체가 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人體의 형성에 있어 神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養神의 중요성

『靈樞·本神』편에 보면 “凡刺之法, 必先本於神. 血脈營氣精神, 此五臟之所藏也.”라고 하여 刺鍼을 할 때에는 반드시 神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하는데, 血·脈·營·氣·精을 五臟이 貯藏하고 있는 神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부분에 보면 “五臟, 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精’은 곧 ‘神’과 ‘氣’를 포괄해서 말하는 것으로, 陰인 精이 손상되면 精속에 내재해 있는 神과 氣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소멸되어 죽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은 자세한 주석을 하면서 ‘養神’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죽지 않는 방법은 五神을 기르는 것이다.”¹⁰²⁾고 하였으며, 또 주하기를 “千가지의 禍가 비롯되어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한다면, 마침내 萬가지의 欲情이 眞性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金石과 같은 貴하고 보배로운 약재를 복용하여 어차피 죽게 될 몸뚱이를 더 빨리 채촉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神仙이 되기 위한 芳草를 구하기 위하여 百年도 안 되는 수명을 매일 수고로이 보내는

9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0. “雌雄兩神相搏, 共成一形. 先我身生, 故謂之精也. 卽前兩精相搏, 共成一形, 一形之中, 靈者謂之神者也, 斯乃身之微也.”

99) 『論語·述而』편에 보면 “子不語, 怪·力·亂·神.”을 말하는 듯하다.(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61.)

10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70-71. “問曰: 謂之神者, 未知於此精中始生, 未知先有今來? 答曰: 按此『內經』, 但有神傷·神去, 與此神生之言, 是知來者, 非曰始生也. 及案釋教, 精合之時, 有神氣來託, 則知先有, 理不虛也. 故孔丘不答, 有知無知, 量有所由. 唯佛明言, 是可依.”

101)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p.40.

10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4. “不死之道者, 養五神也.”

구나! 예전에 彭聃¹⁰³은 道로써 삶을 즐겁게 함으로써 壽命이 아주 길어졌고, 秦始皇이나 漢武帝는 不老草를 캐어 神仙이 되려다가 일찍 하늘로 올라갔다.”¹⁰⁴고 하여 長壽하기 위하여 金石藥을 복용하거나, 神仙이 되기 위하여 藥草를 구하고자 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본다면 安國하고 安人하는 道는 心神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亡神하고 亡國하는 재앙은 情欲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입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岐伯께서는 이와 같은 지극한 道로써 軒轅 黃帝의 물음을 답한 것이니 千古의 遺風인 『內經』을 저술함으로써 萬百姓의 고통을 구제한 것이다.”¹⁰⁵고 하여 ‘情欲’을 줄이고 ‘養神’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靈樞·大惑論』편에 보면 “心有所喜, 神有所惡, 卒然相感, 則精氣亂, 視誤故惑, 神移乃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楊上善이 주하기를 “心の 神적인 작용을 ‘情’이라 부르고, 情이 좋아하는 것을 ‘欲’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情이 欲을 일으키는 것을 神이 싫어하는 것이고, 神이 좋아하는 것을 心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養神을 하여 반드시 情欲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니, 情欲이 제거되어 神이 편안해야만 長生久視할 수 있는 것이며; 心이 하는 대로 맡겨둔다면 情欲이 백가지로 생겨날 것이고, 情欲이 이미 심해지면 神을 손상하여 목숨을 해칠 것이다.”¹⁰⁶고 하였다. 곧 ‘任心所作’이라고 하여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情欲’이 한없이 일어난다고 표현하였고, 養神하고자 하면 반드시 情欲을 억제하고 제거하여 心을 平安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養神’과 ‘欲情’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太素·雜病』편에 보면 楊上善이 七情病의 치료에 대하여 自問自答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주하기를 “물어 말하기를 喜怒哀思라는 감정은 心에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鍼灸로써 치료한다는 것은 너무 迂遠한 것이 아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風寒暑濕이나 飮食 혹은 男女로 인하여 病이 생겨서 心病이 아닌 것은 鍼石과 湯藥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喜怒哀思로 神을 손상하여 病이 되는 것은 먼저 반드시 理로써 神을 맑게 하고 性情을 맑게 하여 喜怒哀思를 제거한 연후에 鍼과 藥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⁰⁷고 하여 鍼灸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치료를 겸해서 ‘清神明性’하여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 精氣神血과 性命과의 관계

『素問·寶命全形論』에 보면 “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天은 氣를 내려주고 地는 形을 주어서 二氣가 합하여야 人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은 地로부터 나오고 命은 天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¹⁰⁸고 하였다. 결국 인간은 肉體와 精神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地로부터는 ‘形’을 부여받고 天으로부터는 ‘命’을 부여받아 살아가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靈樞·本藏』편에 보면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於生, 而周於性命者也.”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사람이 性命을 유지하는 것은 肉體와 精神이 있어야 하는데, ‘血氣’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

103) 彭聃(팽담): 殷나라의 大夫로 性を 잘 다스려 7百歲의 長壽를 누렸다고 한다.

10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4. “始以千端之禍, 害此一生, 終以萬品欲情, 澆亂眞性. 仍服金石寶貴, 催斯易往之軀, 多求神仙芳草, 日役百年之命! 昔彭聃以道怡性, 壽命遐長; 秦武採藥求仙, 早昇霞氣.”

10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4. “是知安國安人之道, 莫大怡神, 亡神亡國之災, 無出情欲. 故岐伯以斯至道, 上答黃軒, 述千古之遺風, 拯萬葉之荼苦也.”

10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97. “夫心者神用, 謂之情也; 情之所喜, 謂之欲也. 故情之起欲, 是神之所惡, 神之所好, 心之所惡. 是以養神, 須去情欲, 欲去神安, 長生久視; 任心所作, 則情欲百端, 情欲既甚, 則傷神害命.”

10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87. “問曰: 喜怒哀思, 乃生於心, 今以針灸療之, 不亦迂乎? 答曰: 病有生於風寒暑濕, 飮食男女, 非心病者, 可以針石湯藥去之. 喜怒哀思, 傷神爲病者, 先須以理, 清神明性, 去喜怒哀思, 然後以針藥, 裨而助之.”

10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326. “天與之氣, 地與之形, 二氣合之爲人也. 故形從地生, 命從天與.”

고, ‘精神’은 영혼의 근거가 되어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내용인데 楊上善은 이것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가 주하기를 “太初의 無를 ‘道’라고 부른다. 太極이 아직 일정한 形을 갖추지 않았을 때, 物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德’이라고 부른다. 아직 일정한 形을 갖추지 않은 德이 나누어지지만, 또한 틈이 없는 이것을 ‘命’이라고 부른다. 이 命이 流動하여 物을 낳고, 物이 이루어지면서 理를 낳는데 이것을 ‘形’이라고 부른다. 形體가 神을 보유할 때는 각각이 짝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性’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血·氣·精·神은 한 가지 形의 생명을 봉양하면서, 形體가 짝하고 있는 性을 두루 돌아다니고, 또한 有分無間한 命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命이 나누어져서 流動하면 形을 이루고, 形體가 神을 보유하는 것이 性이 되는데, 形과 性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血氣가 길러주기 때문이다.”¹⁰⁹⁾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楊上善은 道-德-命-形-性의 관계에 대하여 구분하여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道’라는 것은 太初에 아무것도 없는 混沌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老子·25章』에 나오는 “有物混成, 先天地生”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無’의 상태로 ‘太極’과 같은 개념인데, 이 ‘太極’의 混沌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物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德’이라고 부른다. 이때의 德이 太極의 混沌속에 있다가 分化는 되었지만 완전히 分離된 상태는 아닌 것을 ‘命’이라고 부르고, 이 命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形’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形體’와 ‘神’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形體’는 곧 ‘神’이 의지하여 존재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것

으로, 인체의 五臟에는 서로 다른 神이 저장되어 있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性’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血氣와 精神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5) 心不受邪에 대한 견해

『靈樞·邪客』편을 살펴보면 黃帝가 手少陰脈만 유독 腧穴이 없는 까닭을 묻는 물음에 岐伯이 대답하기를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客也. 客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라고 설명하고 있다. 韓醫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心臟은 君主之官으로 堅固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外邪의 침습을 받지 않으며, 만일 邪氣가 心에 침입하면 곧 죽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岐伯이 이어서 대답하기를 “故諸邪之入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이라고 하여 邪氣가 心에 침입하면 心包가 대신해서 邪氣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靈樞·本輸』편에서 설명하는 心臟에 해당하는 輸穴이 실제로는 心包經絡에 소속되어 있는 經穴자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黃帝가 계속해서 질문하기를 “少陰獨無腧者, 不病乎?”라고 하니, 岐伯이 대답하기를 “其外經病, 而臟不病.”이라고 하여 만약 心이 病이 든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經絡에 病이 있는 것이지 心臟 자체에는 病이 들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楊上善은 이 문장을 주석하기를 “그 臟이 堅固해야 病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五臟중에 心에도 堅脆한 것이 있는데, ‘心脆者, 善病消痺’이라고 한 것은 堅固하지 못하므로 消痺病에 잘 걸리는 것이니 곧 心臟도 邪氣를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不受邪’라는 것은 ‘外邪를 많이 받지 않는다’는 뜻을 알 수 있다. 飲食과 資心(마음가짐)으로 病에 이르는 자는 邪氣를 받지 않을 수 없으니 少陰心經이 주관하여 생기는 病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明堂』에 보면 手少陰經도 역시 五輸穴이 주치하는 병증이 있으니 輸穴이 없을

109)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6. “太初之無, 謂之道也. 太極未形, 物得以生, 謂之德也. 未形德者有分, 且然無間, 謂之命也. 此命流動生物, 物成生理, 謂之形也. 形體保神, 各有所儀, 謂之性也. 是以血氣精神, 奉於一形之生, 周於形體所儀之性, 亦周有分無間之命. 故命分流動成形, 體保神爲性, 形性久居爲生者, 皆血氣之所奉也.”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¹¹⁰⁾고 하여 ‘心不受邪하고 心包가 대신 邪氣를 받는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에 대하여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 『靈樞·經脈』편에 보면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出屬心系, 下膈, 絡小腸.”이라고 하여 心藏의 經脈流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手少陰經의 是動病과 所生病에 해당하는 몇 가지 病症이 있고, 盛衰를 말하면서 補瀉의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주하기를 “이것은 ‘心藏이 外邪를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飲食과 湯藥이 안으로 心藏에 사용된다면 損益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心藏에 사용한다면 心藏은 편안할 것이고, 만약 나쁜 음식과 안 좋은 약을 心藏에 사용한다면 心藏도 病이 들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心不受邪’는 邪氣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手少陰經에서 是動과 所生으로 病이 이르는 것과, 『明堂』에 五輸穴이 있어 病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內資와 外邪를 받는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곧 手少陰經도 邪氣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病이 있는 것이다.”¹¹¹⁾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靈樞·五亂』에 보면 “氣在於心者, 取之手少陰, 心主之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氣在於心, 取手少陰經”한다고 하였다. 앞에 나온 經文에서 말하기를 ‘心不受邪’라고 하였는데, 지금 邪氣가 心에 있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邪氣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만약 邪氣가 心의 包絡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곧 오로지 手心主의 經脈에서 치료해야 할 텐데 어찌하여 心病에 두 가

지 經脈을 함께 치료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心도 또한 邪氣를 받음을 알 수 있다.”¹¹²⁾고 하여 心臟도 邪氣를 받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心不受邪’라는 것은 ‘邪氣를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邪氣를 받지 않고 心包가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楊上善은 의학을 배우는 자들이 文字에 얽매어서 文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愚를 범할까 염려하여 자세한 주석을 함으로써 文章속에 숨어 있는 含意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 命門學說

『靈樞·根結』편에 보면 “太陽, 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라고 하여 ‘命門’을 ‘目’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이외의 다른 언급은 없다. 命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서적은 『難經』¹¹³⁾인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고 하여 命門의 위치와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歷代의 醫家들은 『內經』에서 ‘命門者目也’라고 한 ‘命門’과 『難經』에서 ‘左腎右命門’이라고 한 ‘命門’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았지 상호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難經』에 나오는 ‘左腎右命門’의 내용은 後人들이 臆說이지 『內經』의 본뜻은 아니다.”¹¹⁴⁾라고 까지

11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10. “氣在於心, 取手少陰經者. 上經云: 心不受邪, 今氣在心, 若爲不受邪也? 若言邪在心之包絡, 即應唯療手心主之經, 何爲心病, 二經俱療? 故知心者亦受邪也.”

113) 『難經』에서 ‘經言’이라고 한 인용문은 총 34개소인데, 그 중에는 『靈樞』, 『素問』에서 그에 상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조문이 19개나 되며, 상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13개 조문도 『靈樞』에만 나타날 뿐 『素問』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靈樞』와 『難經』의 문장을 비교해 보더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兩者는 모두 동일한 고대 문헌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靈樞』는 이 문헌을 직접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것이고, 『難經』은 후에 따라 문장을 인용하고 질문을 제시하여 뜻을 풀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余自漢 外7人.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16-25.)

114)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176. “楊注腎

11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27. “其藏堅固者. 如五藏中, 心有堅脆, 心脆者, 則善病消痺, 以不堅, 故善病消痺, 即是受邪. 故知不受邪者, 不得多受外邪, 至於飲食資心, 以致病者, 不得無邪之, 所以少陰心之主所生病, 皆有療也. 又『明堂』手少陰, 亦有五輸主病, 不得無輸, 即其信也.”

11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03. “其心藏不得多受外邪, 其於飲食湯藥, 內資心藏, 有損有益, 不可無也. 故好食好藥資心, 心即調適; 若惡食惡藥資心, 心即爲病. 是以‘心不受邪者’, 不可受邪也. 言手少陰, 是動所生病, 及『明堂』有五輸療者, 據受內資, 資外邪也. 言手少陰是受邪, 故有病也.”

말하여 『難經』의 命門說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楊上善은 이 둘의 관계를 최초로 연결시켜서 설명하였으니 “腎이 命門인데 위로 太陽經의 目과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目을 命門이라고 한 것이다.”¹¹⁵⁾고 하였다. 그는 『太素』의 여러 곳에서 『難經』을 인용하면서 注釋을 가하고 있는데 命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계통별로 묶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腎藏精과 腎藏志

『靈樞·本神』편에 보면 “五臟, 主藏精者也.”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楊上善이 주석하기를 “사람의 腎에는 두 개가 있으니 左는 腎藏이고 右는 命門이다. 命門은 精을 저장하고 있는데, 精은 五臟의 精液이다.”¹¹⁶⁾고 하였다.

또 『靈樞·本神』편에 보면 “腎藏精, 精舍志.”라는 내용이 나오고, 『素問·調經論』편을 살펴보면 “腎藏志”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楊上善이 精과 志에 관해서 주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腎藏志”라는 것은 腎은 精을 저장하고 있지만, 精에는 志가 머물고 있으므로 지금 ‘藏志’라는 것은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한다. 腎은 두 개가 있는데 左에 있는 것은 腎이 되고, 右에 있는 것은 命門이 된다. 腎은 志를 藏하고 있고, 命門은 精을 藏하고 있다. 그러므로 ‘腎藏精’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¹¹⁷⁾고 하였다.

(2) 七節之傍, 中有志心

『素問·刺禁論』편에 보면 “臟有要害, 不可不察.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膈背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咎.”라는 내용이 나온다.

有二枚之說, 則原于「三十六難」‘腎兩者非皆腎, 而左腎藏志, 右腎藏精之說, 則左爲腎, 右爲命門’之改裝, 其實皆後人之臆說, 非『內經』本意.”

11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57. “腎爲命門, 上通太陽於目, 故目爲命門.”

11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4. “人腎有二: 左爲腎藏, 右爲命門. 命門藏精, 精者, 五臟精液.”

11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10. “腎藏志者, 腎藏於精, 精以舍志, 今藏志者, 言所舍也. 腎有二枚, 在左爲腎, 在右爲命門, 腎以藏志, 命門藏精, 故曰腎藏精者也.”

여기에서 ‘小心’은 『太素』에는 ‘志心’으로 나오는데, 歷代 醫家들이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다양한 注釋을 하였다.

먼저 王冰의 注釋을 살펴보면 “小心은 眞心으로 神靈의 宮室이다.”¹¹⁸⁾고 하였고, 馬蒔가 주하기를 “대개 心은 君主가 되므로 大心이고, 包絡은 臣이 되므로 小心이다.”¹¹⁹⁾고 하여 心臟을 둘러싸고 있는 心胞를 ‘小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楊上善이 注釋하기를 “脊椎는 三七의 二十一節이 있고, 腎은 아래에서 헤아려서 七節의 곁에 있다. 腎의 神을 ‘志’라고 하고, 五臟의 靈을 모두 神이라고 부르는데 神이 사물에 임하는 것을 일러 ‘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志心’이라는 것은 腎의 神인 것이다.”¹²⁰⁾고 설명하고 있다. 後代에는 張介賓이 楊上善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脊骨은 모두 二十一節로 上으로부터 헤아리면 十四節의 間이고, 下로부터 헤아리면 七節의 旁이 腎俞이며 그 가운데에 있는 命門은 外俞이다. 사람은 陽氣를 근본으로 하여 태어나는데 陽이 上에 있는 것을 君火라고 하고 君火는 心에 있으며, 陽이 下에 있는 것을 相火라고 하고 相火는 命門에 있으니 모두 眞陽이 있는 곳이므로 ‘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고 말한다.”¹²¹⁾고 하여 ‘小心’은 곧 命門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內經』 注釋家들은 여기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日本의 丹波元簡이 설명하기를 “『甲乙經』에도 역시 ‘志心’이라고 되어 있다. 王冰은 心包絡을 가리키는 것

118)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76. “小心謂眞心, 神靈之宮室.”

119) 馬蒔 編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0. “蓋心爲君主, 爲大心, 而包絡爲臣, 爲小心.”

12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331. “脊有三七, 二十一節, 腎在下七節之傍. 腎神曰志, 五臟之靈, 皆名爲神, 神之所以任物, 得名爲心, 故志心者, 腎之神也.”

121)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23. “人之脊骨, 共二十一節, 自上而下, 當十四節之間, 自下而上, 是爲第七節, 其兩傍者, 乃腎俞穴, 其中則命門外俞也. 人生以陽氣爲本, 陽在上者, 謂之君火, 君火在心. 陽在下者, 謂之相火, 相火在命門. 皆眞陽之所在也, 故曰七節之傍, 中有小心.”

같다. 楊上善은 十四椎의 곁에 있는 腎俞를 가리키는 것 같고, 또한 말하기를 ‘志’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心의 神이라고 하였다. 『素問·陰陽類論』에 있는 ‘上空志心’에 대하여 王冰은 ‘小心’이라고注하였고, 楊上善은 ‘腎志가 心神에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여겼는데, 楊上善의 여기에서의 注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니 그다지 明皙하지 못하다. 또 脊椎는 위로부터 헤아려서 아래에 이르는 것이지 아래에서부터 헤아려서 몇 椎라는 말은 없으니 역시 깨달음이 빼어나지 못하다. 『靈樞·背腧』편에는 ‘心腧在五椎之間, 膈腧在七椎之間’이라고 되어 있으나 心包腧가 經文에는 없으니 王冰의 注는 맞지 않다. 그러나 ‘命門’이라는 개념은 『難經』에서 보이고, ‘相火’는 運氣家의 말이므로 이것도 本經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七節之傍’을 ‘上空’이라고 하였으니 이미 心包도 아니고 또한 腎도 아니니 반드시 별도의 가리키는 것이 있을 것이다.”¹²²⁾고 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中國의 胡天雄이 설명하기를 “脊椎는 二十一節인데 위로부터 헤아려서 十四椎下가 命門穴이 되고, 旁으로 一寸五分이 腎俞가 되며, 旁으로 三寸이 志室이 된다. 楊上善은 ‘下七節’이라고 하였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丹波元簡은 ‘脊椎는 위로부터 헤아려서 아래에 이르는 것이지 아래에서부터 헤아려서 몇 椎라는 말은 없다.’고 한 것이다. 『靈樞·脈論』에 보면 ‘膈中者, 心主之宮城也.’라 하였고, 王冰은 ‘謂真心神靈之宮室’이라고 하였으니 心包絡인 ‘膈中’을 말하는 것 같다. 『素問·陰陽類論』에 있는 ‘上空志心’에 대하여 王冰이 注하기를 ‘志心, 謂小心也.’라 하였고, 『甲乙經』과 『太素』도 이 부분은 서로 통한다. 그러나 이미 ‘上空’이라고 말하였는데 ‘下七節’이라

122)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291. “甲乙亦作志心, 王似指心包絡, 楊則爲十四椎傍腎俞, 而又云, 得名爲志者, 心之神也, 而陰陽類論, 上空志心, 王以爲小心, 楊以爲入腎志于心神之義, 楊注彼此義異, 未大明皙, 且凡脊椎從上數而至下, 未有從下數而云某椎者, 亦覺不允, 背腧篇, 心腧, 在五椎之間, 膈腧, 在七椎之間, 而心包腧, 經文無所考, 然命門昉見于難經, 相火固是運氣家之言, 并非本經之義, …… 竊疑云七節之傍, 云上空, 既非心包, 又非腎, 必有別所指也, 舉數說以俟考.”

는 설은 믿기가 어렵다. 王冰의 注가 뜻에 있어서 옳은 것 같다.”¹²³⁾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內經』에서는 ‘小心’에 대한 내용과 ‘志心’에 대한 내용이 한 번씩 나오는데, 『素問·陰陽類論』편에 나오는 “上空志心”에 대한 王冰의 주석에서 보듯이 “志心은 곧 小心을 말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志心’과 ‘小心’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腎의 經脈인 足少陰經脈은 貫脊하여 腎에 속하고 膀胱에 연락하며, 腎을 따라 올라가서 貫肝하고, 위쪽으로 횡격막을 지나 肺中으로 들어가며, 肺로부터 나와서 心에 연락한다. 肺氣가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腎志는 위쪽으로 心神의 空으로 들어간다.”¹²⁴⁾라고 하여 ‘腎’의 경맥순환을 ‘心肺’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素問·刺禁論』편에 보면 “膈肱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膈肱의 위쪽에 있는 心肺와 아래쪽 七節의 곁에 있는 志心(小心)이 서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 『內經』의 두 부분에서 나오는 ‘志心’에 대한 설명에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문점이 남는 것은 ‘七節’이라는 것은 脊椎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헤아려서 七椎가 되는 곳은 膈俞가 되어 횡격막의 위쪽에 해당하고, 아래로부터 헤아려서 七椎가 되는 곳이어야 腎俞가 되는데, 『內經』의 다른 곳에서 아래쪽으로부터 숫자를 헤아린 경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3) 腎間動氣

123)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326. “脊椎二十一節, 自上數下, 十四椎下, 爲命門穴, 旁開一寸五分爲腎俞, 旁開三寸爲志室. 楊氏‘下七節’之說, 未知所據. 故簡『識』謂 ‘脊椎從上數而至下, 未有從下數而云某椎者.’ 『脈論』‘膈中者, 心主之宮城也.’ 王注 ‘謂真心神靈之宮室’, 似指膈中即心包絡而言. 『陰陽類論』‘上空志心’, 王注 ‘志心, 謂小心也.’ 與 『甲乙』 『太素』彼此互通. 然既曰 ‘上空’, 則 ‘下七節’之說, 無足信矣. 王注義似勝.”

124) 楊上善 撰注, 仁和寺 影印本. 黃帝內經太素(中).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268. “腎脈足少陰, 貫脊屬腎絡膀胱, 從腎貫肝, 上膈入肺中, 從肺出絡心. 肺氣下入, 腎志上入, 心神之空也.”

腎間動氣에 대한 내용은 『難經』에 제일 처음 보이는데, 「8難」에 보면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이라 하였고, 「66難」에 보면,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府.”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곧 腎間動氣가 元氣의 總帥이며 精神의 舍宅인 命門의 發現지를 구체화하여 달리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⁵⁾

하지만 『難經』에서도 命門과 腎間動氣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안 보이는데, 楊上善의 注釋중에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 “사람의 命門의 氣는 곧 腎間動氣이다. 五臟六府와 十二經脈의 性命의 근본이 되므로 이름하여 原이라고 한다. 三焦는 原氣의 別使가 되어 原의 三氣를 通行시키고 五臟六府를 經營한다. 그러므로 ‘原’은 三焦의 尊稱이 되는 것이다.”¹²⁶⁾고 하여 사람의 命門의 氣가 곧 腎間動氣라고 하였고, 이것은 三焦의 原氣와 관련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素問·評熱病論』에 보면 “狂言者, 是失志, 失志者死.”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석하기를 “志는 기억하는 것으로 腎의 神이다. 腎間動氣는 사람의 생명이니, 腎間動氣가 쇠약해지면 곧 神志가 사라지므로 죽게 된다.”¹²⁷⁾고 하여 腎志와 腎間動氣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巨陽主氣, 故先受邪, 少陰與其爲表裏也.”라는 原文이 나오는데, 이것을 注釋하면서 말하기를 “腎間動氣는 足太陽經脈이 주관하는 것이다. 足太陽經脈은 足少陰經脈과 表裏가 되므로 太陽經이 먼저 邪氣를 받으면 經脈을 따라서 위쪽으로 머리에 올

라간다.”¹²⁸⁾고 하여 足少陰經脈에 속하는 腎臟(命門)과 足太陽經脈에 속하는 頭(目)를 서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命門’과 ‘目’의 연관 관계는 『靈樞·衛氣行』편에 나오는 衛氣의 순행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 平旦陰氣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 行陰分, 復合於目, 爲一周.”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楊上善이 주하기를 “衛氣는 낮에 手足의 三陽經으로 운행을 마치면 足心으로 따라 들어가서 足少陰脈을 순환한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目에 합하여 陽經을 운행하는 것을 一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낮에 二十五周를 운행하는 것이다.”¹²⁹⁾고 하여 衛氣의 순행을 통하여도 足少陰經(命門)과 足太陽膀胱經(目)이 서로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楊上善은 『難經』의 “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는 의미의 ‘命門’과 『內經』에 나오는 足太陽膀胱經의 經氣가 통하는 ‘目’을 상호 연계시켜 설명한 최초의 醫家이며, 命門과 腎藏志, 그리고 생명 활동의 근원이 발현하는 腎間動氣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人迎氣口脈

『內經』에서 말한 ‘人迎’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俞穴의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 『素問·氣府論』에서 말한 “足陽明脈氣所發者, 六十八穴, …… 人迎各一.”이라고 한 것과, 『靈樞·本輸』편에서 말한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이라고 한 것, 그리고 『靈樞·根結』편에

125) 김중환. 『黃帝內經』과 『難經』의 원문 비교연구. 대한원전지사학회지. 1998. 11(1). p.119.

12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76. “人之命門之氣, 乃是腎間動氣. 爲五臟六府, 十二經脈, 性命根, 故名爲原. 三焦者, 原氣之別使, 通行原之三氣, 經營五臟六府, 故原者, 三焦之尊稱也”

12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29. “志者, 記也, 腎之神也. 腎間動氣, 人之生命, 動氣衰矣, 則神志去之, 故死也.”

12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29. “腎間動氣, 足太陽所主. 足太陽與足少陰表裏, 故太陽先受邪氣, 循脈而上於頭.”

129)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15. “衛之悍氣, 晝日行手足三陽已, 從於足心, 循足少陰脈, 上復合於目, 以爲行陽一周, 如是晝日行二十五周也.”

서 말한 “足陽明根於厲兌，溜於衝陽，注於下陵，入於人迎豐隆也.”라고 한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둘째는 脈診 부위의 하나로 結喉 옆에 있는 顛動脈의 박동 치를 말하는 것이니, 『靈樞·終始』 편에서 말한 “持其脈口人迎，以知陰陽有餘不足，平與不平，天道畢矣.”라고 한 것과 『靈樞·四時氣』 편에서 말한 “氣口候陰，人迎候陽.”이라고 한 것, 그리고 『靈樞·禁服』 편에서 말한 “寸口主中，人迎主外.”라고 한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楊上善은 당시에 잘못 유행되고 있던 ‘左人迎 右氣口’ 맥진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治療法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人迎脈의 위치 및 특징

人迎脈의 위치에 대하여는 예로부터 많은 說이 있었는데, 『內經』에서는 結喉 양쪽 곁에 있는 박동치를 人迎脈이라고 하였고, 『難經·23難』에서는 “別絡十五，皆因其原，如環無端，轉相灌溉，朝於寸口·人迎，以處百病，而決死生也.”라는 내용만 나오고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으며, 王叔和의 『脈經』 이후로 『難經』의 ‘獨取寸口’ 이론과 결합하여 人迎脈을 寸口에 국한함으로써 左手의 關前一分을 ‘人迎脈’이라고 부르고, 右手의 關前一分을 ‘氣口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楊上善이 注釋하기를 “人迎脈과 寸口脈은 오직 黃帝의 正經에서만 나오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니 있다면 異端이다. 최근에 傳하는 자가 바로 兩手의 左右로써 人迎과 寸口로 삼았으니, 이것은 兩手が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써 上下로 삼은 것으로 결코 正經에는 믿을만한 근거가 없으니 物理에 대해서 잘못 알아 심하지 않을가 두렵다.”¹³⁰⁾고 하였다.

『內經』에서 寸口脈과 人迎脈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靈樞·禁服』 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寸口主中，人迎主外.”라는 내용이 나온다. 먼저

130)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30. “人迎寸口，唯出黃帝正經，計此之外，不可更有，異端。近相傳者，直以兩手左右，爲人迎寸口，是則兩手相望以爲上下，竟無正經可憑，恐誤物深也。”

‘寸口主中’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九卷』과 『素問』을 살펴보면 肺藏인 手太陰脈은 兩手의 寸口中과 兩手의 尺中에서 뛰고 있다. ‘口’라고 말한 것은 氣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寸口부위에는 手太陰의 氣가 통하므로 ‘寸口’라고 부르고, 氣가 운행하는 곳이므로 또한 ‘氣口’라고 부르니, 寸口와 氣口는 차이가 없다. ‘中’은 五藏을 말하니 藏은 陰이다. 五藏의 氣가 手太陰脈으로 순행하여 寸口に 나타나므로 寸口脈은 中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다.”¹³¹⁾고 하였다.

그리고 ‘人迎主外’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結喉의 양쪽은 足陽明脈인데, 五藏六府의 氣를 迎受하여 사람을 기르므로 ‘人迎’이라고 부른다. 『下經』에 말하기를 ‘人迎은 胃脈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任脈의 곁에 있는 動脈은 足陽明으로 人迎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明堂經』에서 말하기를 ‘頸에 있는 大動脈은 박동하는 것이 손에 호응하고 結喉를 끼고 있는데, 이로써 五藏의 氣를 살핀다.’고 하였다. 人迎은 胃脈으로 六府의 長이 되는데, 박동하는 것이 밖에 있지만 살펴보면 안을 알 수 있으므로 外를 주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¹³²⁾고 하여 人迎脈과 寸口脈의 위치와 命名한 意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비판하기를 “이 經典에서 人迎寸口의 脈을 말한 곳이 수십 군데 되지만 마침내 左手의 寸口부위를 人迎으로 삼고, 右手의 關上을 寸口로 삼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서로 傳承되어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診脈하여 보고 약간 얻은 지식으로 유별난 注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믿게 된 것으로

13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259-260. “按此『九卷』『素問』，肺藏手太陰脈，動於兩手寸口中，兩手尺中。夫言口者，通氣者也。寸口，通於手太陰氣，故曰寸口。氣行之處，亦曰氣口。寸口·氣口，更無異也。中，謂五藏，藏爲陰也。五藏之氣，循手太陰脈，見於寸口，故寸口脈，主於中也。”

13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0. “結喉兩箱，足陽明脈，迎受五藏六府之氣，以養於人，故曰人迎。『下經』曰：人迎，胃脈也。又云：任脈之側動脈，足陽明，名曰人迎。『明堂經』曰：頸之大動脈，動應於手，俠結喉，以候五藏之氣。人迎胃脈，六府之長，動在於外，候之知內，故曰主外。”

마침내 依據할 바가 없으니 따라서는 안 된다.”¹³³⁾고 하였다.

계속해서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小大齊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人迎寸口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楊上善이 주하기를 “寸口脈과 人迎脈의 두 가지는 上下에 있으면서 陰陽이 비록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氣이다. 숨을 내뿜으면 두 가지 脈이 함께 가고, 숨을 들이마시면 두 가지 脈이 함께 오니,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밧줄을 당겨서 저쪽에서 당겨서 가면 밧줄도 함께 가고, 이쪽에서 당겨서 오면 밧줄도 함께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寸口와 人迎은 呼吸을 따라서 脈을 끌어당겨서 往來하는 것으로 그 움직임이 이와 같으므로 ‘齊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¹³⁴⁾고 하여 人迎脈과 寸口脈은 上下에 있어서 陰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氣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大小를 관찰함으로써 病證을 살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 診斷法 및 補瀉의 특징

『靈樞禁服』편에서 寸口·人迎脈을 診斷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人迎大一倍於寸口, 病在少陽, 一倍而躁, 在手少陽; 人迎二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倍, 病在足陽明, 三倍而躁, 病在手陽明. …… 寸口大於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寸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躁, 在手少陰; 寸口三倍, 病在足太陰, 三倍而躁, 在手太陰.”이라고 나온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陰經에 있어서는 크기의 순서가 厥陰(一陰)-少陰(二陰)-太陰(三陰)으로 자연스럽게 倍數로 증가하는데, 陽經에 있어서는 少陽(一陽)-太陽(三陽)-陽明(二陽)으로 ‘太陽’과 ‘陽明’에 있어서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三陰三陽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陽化氣, 陰成形.”의 원칙에 따라 陽經은 실질적인 量의 크기보다 氣가 자라났다가 소모되는 순서대로 太陽(三陽)-陽明(二陽)-少陽(一陽)으로 이름하고, 陰經은 形의 크기대로 厥陰(一陰)-少陰(二陰)-太陰(三陰)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脈管내에서의 실제적인 크기는 陽明이 太陽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므로 人迎脈을 診脈할 때에는 少陽(一陽)-太陽(三陽)-陽明(二陽)의 순서대로 倍數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靈樞·終始』편에는 人迎·氣口 진맥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補瀉의 횟수와 하루에 鍼刺하는 횟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人迎一盛, 瀉足少陽而補足厥陰, 二瀉一補, 日一取之. …… 人迎二盛, 瀉足太陽而補足少陰, 二瀉一補, 二日一取之. …… 人迎三盛, 瀉足陽明而補足太陰, 二瀉一補, 二日二取之. …… 脈口一盛, 瀉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瀉, 日一取之. …… 脈口二盛, 瀉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瀉, 二日一取之. …… 脈口三盛, 瀉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瀉, 二日二取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人迎을 치료할 때에는 모두 ‘二瀉一補’를 하였고, 氣口를 치료할 때에는 모두 ‘二補一瀉’를 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루에 鍼刺 치료하는 횟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歷代 醫家 중에는 張介賓이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의 주석을 살펴보면 “三陽은 表를 주관하니 病이 表에 있는 것은 마땅히 瀉를 補보다 倍로 하는 것이고; 三陰은 裏를 주관하니 病이 裏에 있는 것은 마땅히 補를 瀉보다 倍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藏의 氣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오직 그것이 혹시 손상될까 두렵기 때문이다.”¹³⁵⁾고 하여 五臟을 六腑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楊上善은 그 補瀉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注釋을 하고 있는데, “陽이 盛하고 陰이 虛하면

13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0. “此經所言, 人迎寸口之處, 數十有餘, 竟無左手寸口, 以爲人迎, 右手關上, 以爲寸口. 而舊來相承, 與人診脈, 縱有小知, 得之別注, 人多以此致信, 竟無依據, 不可行也.”

134)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0. “寸口人迎兩者, 上下陰陽雖異, 同爲一氣. 出則二脈俱往, 入則二脈俱來, 是二人共引一繩, 彼牽而去, 其繩并去, 此引而來, 其繩并來. 寸口人迎, 因呼吸牽脈往來, 其動是同, 故曰齊等也.”

135)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466-467. “蓋以三陽主表, 病在表者, 宜瀉倍於補也; 三陰主裏, 病在裏者, 宜補倍於瀉也. 皆以藏氣爲重, 惟恐其或傷耳.”

陽을 두 번 瀉하고 陰을 한 번 補하는 것이며, 陰이 盛하고 陽이 虛하면 陰을 한 번 瀉하고 陽을 두 번 補하는 것이다. 그러나 陽이 盛하면 두 번 瀉하고 陽이 虛하면 두 번 補하며, 陰이 盛하면 한 번 瀉하고 陰이 虛하면 한 번 補하는데, 陽을 치료할 때는 瀉수를 많이 하고 陰을 치료할 때는 瀉수를 적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陰氣는 遲緩하므로 補寫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고, 陽氣는 疾急하므로 補寫를 급작스럽게 하면서 陽을 치료할 때는 倍로 하는 것이다.”¹³⁶⁾고 하여 陰陽의 性質으로써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楊上善은 ‘陰陽’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물리적인 크기만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陰陽의 성질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陽의 성질은 急迫하고 陰의 성질은 緩慢하므로 瀉수에 차등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루에 鍼刺하는 瀉수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張介賓의 주석을 살펴보면 “厥陰과 少陽은 肝膽의 木藏이고, 東方이라서 많이 實하므로 ‘日二取之’할 수 있는 것이다. 太陰과 陽明은 脾와 胃이고, 脾胃는 穀氣가 크게 豐부하므로 ‘日二取之’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少陰과 太陽만 ‘二日一取’하는 것은 腎과 膀胱은 天一生水하는 藏이어서 眞陰의 근원이 되므로 마땅히 귀중하게 보존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聖인이 根本을 돌아보는 것이 어찌 鍼刺하는 것에만 그러하겠는가!”¹³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張介賓의 주석을 보면 ‘厥陰과 少陽’을 ‘日二取之’하는 것으로 잘못 주석하고 있는데, 『內經』의 原文에는 ‘日一取之’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주석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한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一取’는 한 번 補瀉하는 것이다. …… 厥陰經의 血氣가 가장 적고, 少陰이 다음으로 많으며, 太陰이 최고로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 少陰을 二일에 一取하고, 厥陰을 一日에 一取하며, 太陰을 一日에 二取하는 것은 혹시 經文에 錯誤가 있는 것 같다.”¹³⁸⁾고 하여 陰陽 氣血의 多少에 대한 속성을 말하면서 『內經』 原文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곧 原文에는 “厥陰一日一取, 少陰二日一取.”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厥陰二日一取’하고 ‘少陰一日一取’하는 것으로 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V. 結論

楊上善의 『太素』는 현재까지 밝혀진 최초의 『內經』 注釋書로써 王冰本の 『素問』·『靈樞』와 더불어 『黃帝內經』의 兩大山脈이라고 할 수 있다. 『太素』에 나타난 楊上善 注釋의 特徵을 살펴보면 全篇에 걸쳐서 빠짐없이 주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分類를 체계적으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陰陽·五行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例外的이거나 앞뒤 문장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여 나름대로의 注釋을 충실히 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醫學理論에 있어서는 經絡의 流注에 대하여 중시하였고, 養神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關闔樞나 命門에 대한 개념은 독특한 견해로 보인다.

이상에서 『太素』의 特徵과 楊上善의 醫學理論을 論題로 하여 考察하였는데, 그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原文의 내용을 自意的으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注釋을 통하여 의문나는 점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다른 『內經』 관련

13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9. “陽盛陰虛, 二寫於陽, 一補於陰. 陰盛陽虛, 一寫於陰, 二補於陽. 然則陽盛得二寫, 陽虛得二補, 陰盛得一寫, 陰虛得一補, 療陽得多, 療陰得少者, 何也? 陰氣遲緩, 故補寫在漸; 陽氣疾急, 故補寫在頓, 倍於療陽也.”

137)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67. “厥陰少陽, 肝膽木藏也, 東方多實, 故可日二取之. 太陰陽明, 脾與胃也, 脾胃大富於穀氣, 故可日二取之. 惟少陰太陽, 則二日一取之, 蓋腎與膀胱, 爲天一之藏, 眞陰之原, 故宜保重如此. 聖人之顧根本, 豈惟鍼刺爲然哉.”

13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69. “一取, 一度補瀉也. …… 厥陰血氣最少, 少陰次多, 太陰最多. 此中少陰二日一取, 厥陰一日一取, 太陰一日二取, 或經錯耳.”

書籍의 원문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기록하였다.

둘째, 陰陽이나 五行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정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양하게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三陰三陽의 經脈理論을 중요시 여겨서 病證을 설명함에 經絡의 循環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足少陰腎經과 督脈·任脈·衝脈의 經絡 流注에 있어서는 독특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셋째, 養生에 있어서는 道家의 老·莊사상에 근본하고, 養神에 있어서는 佛敎사상을 핵심으로 하여 ‘欲情’을 줄일 것을 강조하였으며, 儒家의 『周易』 思想을 의학이론에 차용하여 生理와 病理를 해석하였다.

넷째, 전통적으로 ‘心者는 君主之官’이라 하여 心臟은 인체의 가장 귀중한 臟器이므로 邪氣를 받지 않고 心包가 대신해서 邪氣를 받는다는 관점이 있었는데, 楊上善은 『內經』에서 말하는 ‘心不受邪’의 의미가 ‘心은 邪氣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절대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外邪를 많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文字의 裏面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밝혔다.

다섯째, 楊上善은 『內經』에서 말한 ‘命門者目也’라는 것과 『難經』에서 말한 ‘左腎右命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둘의 관계를 최초로 연결시켜서 설명하였으니 “腎이 命門인데 위로 太陽經의 目과 서로 통한다.”고 하였고, 命門은 ‘七節之傍, 中有志心’과도 관련되고, 腎間動氣와도 관련됨을 설명하여 思想적으로 明代 溫補學派들이 命門을 중시한 것과 서로 貫通하고 있다.

여섯째, 『內經』에서 人迎氣口脈을 언급한 곳이 여러 편에 있지만 左手로써 人迎脈으로 삼고, 右手로써 寸口脈을 삼은 곳은 없음을 강조하면서 王叔和이후에 잘못 전해진 左人迎·右氣口 脈診法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太素』는 傳承되어 오는 과정에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王冰本 『內經』 原文의 校勘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對照校本이라 할 수 있

며, 특히 그의 注釋에 나타난 醫學理論은 『內經』의 含意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김기욱, 박현국. 楊上善과 王冰 주석의 比較論的인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2001. 14(1). pp.89-120.
2. 김인락. 開闔樞와 關闔樞.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pp.11-17.
3. 김중환. 黃帝內經과 難經의 원문 비교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8. 11(1). p.119.
4. 엄동명. 素問·臟氣法時論의 ‘苦以燥之’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p.1-7.
5. 이용범. 楊上善이 太素에 注를 단 時期 및 『黃帝太素』가 전해 내려온 과정. 東洋醫學. 1995. 통권 제 65호. pp.38-39.
6. 이용범. 太素·經脈病解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4). p.151-169.
7. 이용범, 박찬국.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10. pp.468-481.

〈단행본〉

1.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p.32, 296.
2.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291, 326, 352-353.
3. 丹波元堅. 素問紹識. 서울. 一中社. 1991. p.448, 677.
4. 馬蒔 編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0.
5. 박찬국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515.
6.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

- 을. 大星文化社. 1991. p.19, 26, 45, 46, 59, 60, 70, 71, 74, 76, 88, 103, 106, 107, 112, 115, 116, 117, 118, 122, 125, 127, 130, 143, 144, 149, 152, 157, 161, 162, 163, 176, 210, 215, 269, 326, 331, 410, 429, 497, 587. pp.44-45, 60-61, 113-114, 123-124, 259-260.
7. 楊上善 撰注, 仁和寺 影印本. 黃帝內經太素.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268, 503.
8.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著.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역.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16-25, 40-41, 115-121.
9. 王冰 撰注.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 7, 26, 34, 43, 50, 276, 318, 321.
10. 王洪圖. 內經講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83-84.
11.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출판사. 1990. p.39.
12. 윤창렬. 醫哲學. 서울. 周珉出版社. 2005. pp.331-370.
13. 윤창렬,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서울. 周珉出版社. 2002. pp.518-519.
14. 李國卿 外 4人. 素問疑識. 서울. 一中社. 1992. p.39.
15.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7, 48, 202, 467, 472, 523. pp.466-467.
16. 張志聰 編註.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73. pp.207-208.
17. 田代華. 校勘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p.34-35.
18.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p.40, 249. pp.38-39.
19.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61, pp.1-8.
20. 胡天雄. 素問補識. 서울. 一中社. 1992. p.5, 55, 176, 322, 326. pp.172-173.
21. 皇甫謐.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827-831.

